

리아호나



행복에 이르게 해 주는 최고의 조언, 14쪽

새로운 회원들이 여러분에게 알려
주고 싶어 하는 네 가지, 22쪽

침묵이 언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28쪽

내 딸의 자살 후 우리 와드가 나를
구원해 주었다, 34쪽



평화로운 풍경 멀리 구모라 언덕이 보인다. 고대 아메리카에서 모로나이라는 이름의 니파이인 선지자는 그의 백성의 기록을 땅속에 숨겼다. 약 1,400여 년이 지난 후 모로나이는 천사의 몸으로 나타나 어린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그 기록이 묻힌 곳을 알려 주었고, 조셉은 그 기록을 꺼내어 번역했다. 그 기록은 물문경이라 알려지게 되었다.

사진: 조지 에드워드 앤더슨,
교회 역사 도서관 자료 저장소 제공.



14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한마음



표지
사진: 레슬리 닐슨

특집 기사

- 14 행복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길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우리 앞에 놓인 삶이 오르기 힘든
산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
- 22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을 우리 안으로 포용하기
벤티 밴덴버그
새로운 회원과 다시 교회로 돌아온
회원들이 교회에서 환영받는다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 28 신앙을 수호하다
외르크 클레빈가트 장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34 딸의 자살 후 고통에서 구원받다
르 에타 소프
딸의 자살 후, 나는 정서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와드는 내가 다시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었다.

교회 본부 기사

- 8 2017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 10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사랑과 초콜릿 케이크: 그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데브 지 듀란트
- 38 신앙의 초상
카요와 앙토니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물문경: 진정한 기적
마크 이 피터슨 장로


다음 달 기사에서

2018년도 멜기세덱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 모임에 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 44 의심의 위험 이겨 내기
휴고 몬토야 장로
도처에 의심과 유혹이 가득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충실히 남을 수 있는가?
- 48 음악에 대한 실험
마르셀 홀
나는 아주 작고 간단한 것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
보세요.
힌트: 여러분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
보았나요?



- 50 비행의 역할
리처드 엠 롬니
비행기와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 52 여러분의 간증, 그리고 몰몬경
몰몬경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청소년들이 들려주는 세 가지
이야기.
- 56 몰몬경에 나오는
스물다섯 가지 진리
몰몬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이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 58 경전: 매일 10분 만이라도
해들리 그리스
경전 읽기 목표를 세우고
호지부지되는 것이 지켜운가?
이렇게 한번 해 보자.
- 62 포스터: 할 일이 너무 많은가?
- 63 해답을 찾아서
어떻게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64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어떻게 성신을 초대하는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65 우리들 공간



- 66 연차 대회 단어 세기
연차 대회 동안 여러분이 듣게 되는
말씀의 단어를 세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요!
- 67 그리스도 그림
테슬라 에스
테슬라의 친구는 자신에게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테슬라도
뭔가를 준비했지요.
- 68 제인의 선택
제시카 라슨
제인은 진리를 찾고 있었어요.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 70 우리들 이야기
- 71 교회사의 인물들: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나무 성전
- 72 사도들의 답변: 간증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
- 73 불량난은 하지 마세요!
진 비 빙엄 자매
위험한 것을 가지고 놀면 다칠 수
있어요!
- 74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줄리 코널리어스-후양
이렌은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를 가 보았어요. 그 교회는 그동안
보던 교회와는 많이 달랐어요.
- 76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은 친절하세요
김 웹 리드
- 79 색칠하기: 나는 친절할 수 있어요

2017년 9월호 제54권, 제9호

리아호나 14449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사도 위원회: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앨콕,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던

편집자: 조센 더블유 시타티

부편집자: 랜들 케이 베네토, 캐럴 애프 맥קי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진 비 빙엄,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크리스토퍼 골든, 더글라스 디 홀츠, 에릭 더블유 쿠퍼피쉬케, 레리 알 로렌스, 캐롤 엠 스티븐슨

관리 책임자: 리차드 아이 하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크레미다 에머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머리사 드니스,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로리 풀러, 게리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존 라이언 잰슨, 살라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독, 샬리 존스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켈 핀보로우, 리차드 엠 홈나, 민디 앤 셸루, 머리사 윌슨

편집 인턴: 제시카 파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대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루, 페이 피 앤드러스, 시 캄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클린 윙클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킵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레이철 스미스, 브래드 데이, 케이 니콜 워너호스트

디자인 인턴: 에밀리 처예코 레밍턴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엠 피터슨

제작팀: 글렌 어데어, 콘니 바슬프 브르치, 줄리 버트,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주니 제이 닐슨, 가일 타데 러퍼티, 데렉 리차드슨

사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케이 벨링가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서, 또는 현지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와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등록: 제618호, 제54권, 제9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7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이호상

편집인: 안덕현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화술정보(주) 채종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g “물품신청”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아나니아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리비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아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7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를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저작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September 2017 Vol. 41 No. 9.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아이콘 그림: 게티 이미지

인터넷 활용하기

iahona.lds.org에서

기사를 읽고 여러분의 기사도 보내 주십시오.

facebook.com/iahona.magazine에서

영감에 찬 메시지를 찾고 나누십시오. (영어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만 제공됩니다.)

iahona@ldschurch.org로

피드백을 보내 주십시오.

store.lds.org를 방문하거나 지역 배부 센터를 방문하여

구독을 신청하십시오. 와드 서기에게 부탁하거나 1-800-537-5971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미국 및 캐나다 지역만 해당)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르침, 10

간증, 72

개종, 22, 38, 52, 68,

기도, 52, 64, 72

난민, 65

다른 종교, 67, 74

단합, 7, 22

물문경, 42, 43, 52, 56, 58, 80

봉사, 7, 10, 34, 65, 67, 72

사랑, 7, 10, 14, 34

사망, 34, 40

선교 사업, 10

선지자, 4

선택의지, 14, 28, 68

성구, 52, 56, 58, 72

성신, 7, 64, 73

세미나리, 65

순종, 73

신앙, 28, 41, 44, 63, 64

연차 대회, 4, 66

예수 그리스도, 7, 14, 44, 56

용기, 28, 44, 63, 68

의심, 44

일, 14

전세, 28

중독, 42

친절, 14, 22, 34, 76, 79

하나님 아버지, 28, 48, 50, 63,

64

행복, 14, 34

활동 촉진, 10, 22, 34

회개, 63, 73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우리를 인도하는 선지자

몇 년 전에 저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매주 만나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면 벽을 올려다 보니, 거기에는 이제까지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셨던 분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에서부터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제 전임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회장님들로부터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분들은 절대 약해지지도, 흔들리지도, 실패하지도 않았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제가 알고 사랑했던 현대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삶과, 성품과, 영감에 찬 가르침들이 떠오릅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 회장님은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당시 교회의 회장이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떠올려 보면, 그랜트 회장님은 항상 끈기, 즉 선하고 고상한 것들을 향한 불굴의 노력 면에서 모범이 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1870~1951) 회장님은 제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감독으로 봉사했을 당시 교회 회장이셨습니다. 그분은 주님과 사탄 사이에서 거대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경계선에서 주님 쪽 선 안에 머문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어 옳지 않은

일을 행하려는 욕망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¹

저는 1963년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맥케이 회장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독교 정신이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²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2) 회장님은 교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저술가 중 한 분이셨으며 복음에 대한 연구를 인생의 지도 원리로 삼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경전을 읽으셨으며,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경전에 나오는 가르침과 교리에 정통하셨습니다.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님은 제가 소년이었을 때 저의 스테이크 회장이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자주 인용하시던 문구는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였습니다.³ 또한 그분은 성신과 조화롭게 생활하고, 그 속삭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며 성도들을 독려하셨습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의 삶을 특징짓는 주된 원리는 헌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온전히, 그리고 명백히 주님께 헌납된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데 자신을 헌납하셨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님은 교회 회장이 되시면서 저를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리는 사랑이었으며, 그것은 그분이 가장 좋아하던, 구주의 다음 질문에도 잘 나타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선지자를 보내 주십니다. 이번 10월 연차 대회 동안, 교회의 총관리 역원들은 다시 한 번 구주의 말씀을 전할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엄숙하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수행합니다.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되었으며 그 교회는 계시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계속되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선입니다.

그 계시는 연차 대회 동안 풍성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어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지지할 때 우리 마음이 굳은 결심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듣는 동안 깨우치고, 교화되며, 위로받고,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사업에 전념하고자 마음을 다잡고, 그분의 계명과 뜻을 지키고 수행하려는 새로운 결심으로 살도록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2011), 191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2003), 181쪽.
3. 교리와 성약 87:8.
4. 제3니파이 27:27.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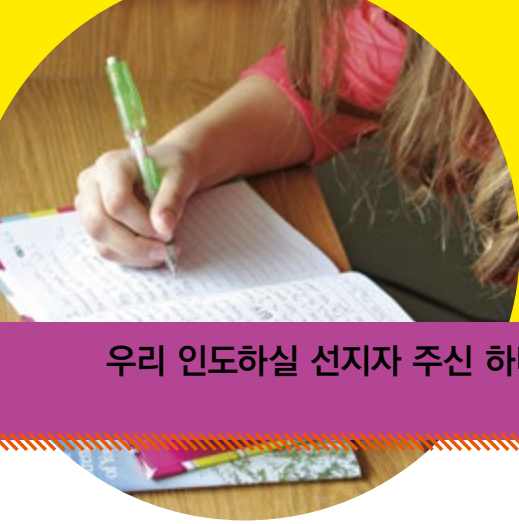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은 언제나 사람들의 장점을 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정중하셨고 겸손하셨습니다. 제가 헌터 회장을 보좌할 수 있었던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구주와 그분의 사명에 대한 강력한 간증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일회장단에서 그분의 제1보좌로서 봉사한 것은 제게 영광이자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몬슨 회장은 앞서간 선지자들로부터 배운 강력한 교훈들을 전했다. 그는 또한 “구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반원들과 함께 왜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표가 되는지를 토론해 볼 수 있다. 몬슨 회장의 이전 연차 대회

말씀 중 하나를 골라 거기에 나온 권고들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원들에게 과거 연차 대회 말씀 중 그들에게 특별히 영감을 주었던 것이나 구주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었던 것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다가오는 연차 대회를 준비해 보라고 권유한다.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찬송가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은 lds.org/go/9176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여러분은 그의 어떤 면을 가장 생생히 기억하게 될 것 같은가? 그가 이 말씀에서 각 선지자들에게 받은 영향력을 적은 것처럼, 몬슨 회장과 그의 삶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일기장에 적어 본다.

여러분은 또한 몬슨 회장의 말씀 중 가장 좋아하는 문구를 정해서 학교에서 쓰는 바인더나 공책 등 자신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적어 놓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정한 그 문구를 사진으로 만들어서 휴대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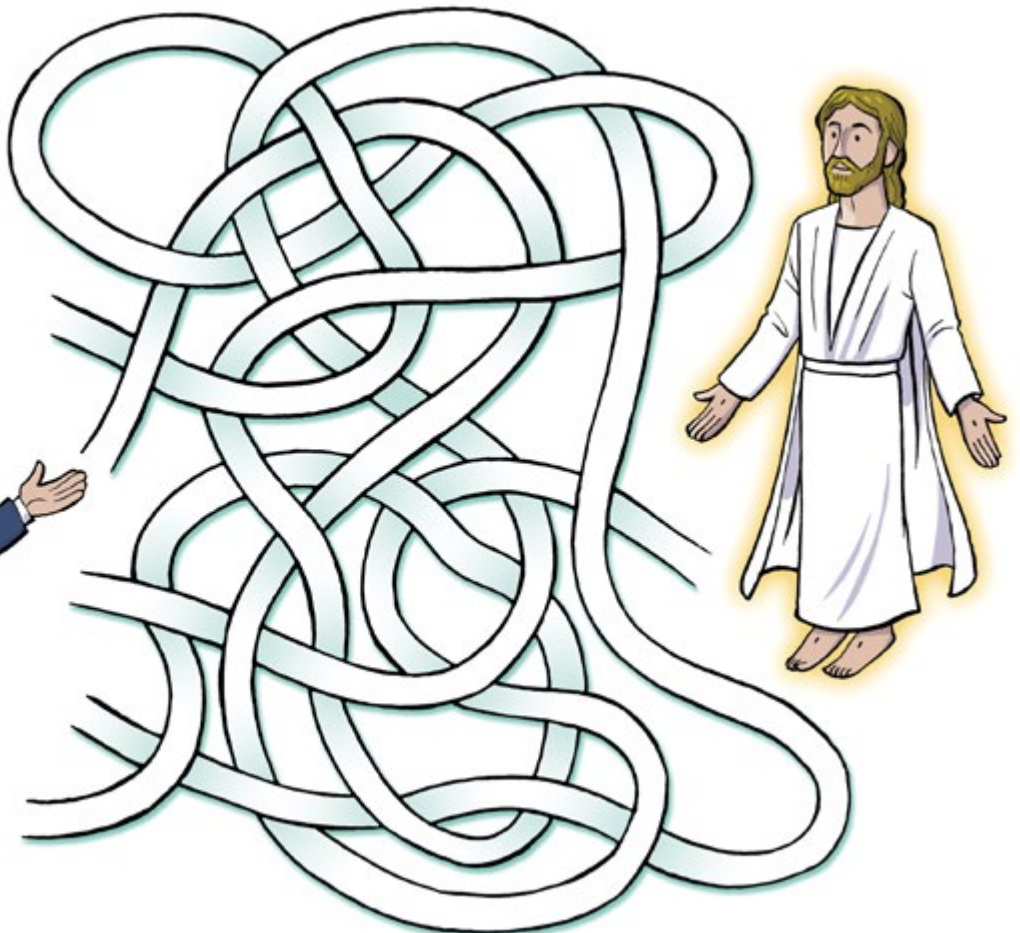
배경 화면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살아 있는 선지자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그가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페기 마리 블로레스

어린이

선지자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따르면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지자를 따르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삽화: 에덤 코포드

한마음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알고자 영감을 구한다. 하나님의 딸들이 영생의 축복을 얻도록 준비되는 과정에서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더라.”(모세서 7:18) 우리는 어떻게 한마음이 될 수 있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러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영어로 속죄(atonement)라는 단어에서 핵심이 되는 말은 중간에 있는 하나(one)라는 말입니다. 온 인류가 이 사실을 이해할 경우, 우리는 연령, 인종, 성별, 종교, 혹은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불친절하거나, 무정하거나, 불경스럽거나, 무감각하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¹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들이 영을 지니고 있는 곳에서는 조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영은 결코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제3니파이 11:29 참조) … 영은 개인적으로 화평을 얻고 다른 사람과 화합하도록 인도합니다.”²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신앙
가족
구제

제1보좌로 봉사한 캐롤 엠 스티븐스는 가족이 겪는 시련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고통과 불안정한 상황을 겪어 보지 않았으며 편모의 책임을 이행하며 생활한 적도 없습니다. 자녀의 죽음이나 불임, 동성애를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학대, 만성질환, 중독 등으로 고통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겪은 시험과는 거리가 멉니다.

…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저는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시는 한 분, 즉 주님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덧붙이자면, 저는 누군가의 딸, 어머니, 할머니, 자매, 이모나 고모, 친구의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필멸의 시험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성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얻는 기회란 자신의 시련에서 배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약을 맺었듯이,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힘겨워하는 이들을 도울 때 동정과 연민으로 단합하는 것도 우리가 얻는 기회입니다.”³

추가 성구 및 자료

요한복음 17:20~23; 에베소서 4:15; 모사이야서 18:21~22; 제4니파이 1:15 reliefsociety.lds.org

주

1. 엠 러셀 벨러드, “속죄와 한 영혼의 가치”,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86쪽, 번역 일부 수정.
2. 헨리 비 아이어링, “하나가 되기 위하여”, 리아호나, 1998년 7월호, 67쪽.
3. 캐롤 엠 스티븐스, “주님 가족 주셨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1, 13쪽, 번역 일부 수정.



생각해 볼 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데 도움이 되는가?

2017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7년 4월 연차 대회를 다시 읽으면서 다음 내용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다.



교리 살펴보기

신회

우리는 신회, 그분들과 우리의 관계, 인생의 목적, 우리의 영원한 운명의 본질에 대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지상 생활의 여정에서 최고의 지침과 자신감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과 목적을 압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도 압니다.(교리와 성약 93:19 참조)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 오는 궁극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회와 구원의 계획”,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03쪽.

선지자의 약속



하늘의 권능을 끌어내리십시오

“신권을 의롭게 행사하느냐는 친절과 자애,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경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

우리 삶을 돌아보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자애를 베풀면서 구주의 모범을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 그리고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때때로 험난한 이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료 여행자들을 위해 하늘의 권능을 더 잘 끌어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친절, 자애, 사랑”,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66, 67쪽.

conference.lds.org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5]

... 의지한다는 영어 단어 lean은 다른
것에 몸을 기대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몸을 어느 한쪽으로 기댈 때
우리는 중심에서 벗어나 균형을 잃고
기울어집니다. 영적으로 자신의 명철에

기대고 의지할 때 우리는 구주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주를 알게 되면 우리는 삶의
중심을 그분께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니 에이치 코든,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6, 9쪽.

유사점 알아보기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

때로는 여러 연사가 같은 복음 주제로 말씀을 하기도 한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에 관한 세 연사의 말씀이다. 2017년 5월호를 활용하거나
conference.lds.org를 방문하여 그분들의 말씀을 더 읽어 본다.

-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눈에 띄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굴하지 않고 헌신적이며 용감합니다.”
—러셀 엠 넬슨,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오십시오”, 39쪽.
-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자는 영적인 테피스트리(여러 가지 색실로 그림을 만들며 짜 넣은 직물,
역자 주)를 만들어 가듯 그리스도의 특성을 하나하나 엮어서 자신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46쪽.
- “안식일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배당 문이 닫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을 내려놓고 연구하고 기도하며 관심이 필요한 가족과
이웃에게 다가가는 아름다운 날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닐 엘 앤더슨, “제상을 이기십시오”, 58쪽.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누구일까요?

1. “회개하는 죄인이 그 죄인을
비난하는 독선적인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경고의 음성을 높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사랑,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경고한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의 선율이라면,
우리의 공통된 목표인
순종은 이 노래에 꼭 필요한
화음입니다.”
4. 전에도 청소년이 자기 조상의
이름을 성전에 가져가는
것은 환영받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은 드물고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보편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원어인 *in the* (b) ‘그를
로 *to* (c) ‘구원받으려 드는
to (d) ‘그를 *to* (e) :음



사랑과 초콜릿 케이크: 그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데븐 지 듀란트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

버 베타 소넨버그 자매는 낙심해 있었습니다. 여덟 살이 채 안 된 다섯 명의 딸을 키우는 와중에 16~17반 주일학교 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도 놀라웠지만, 몇 달간 교사로 봉사해 보니 이 반은 참석 수가 들쭉날쭉한 데다 그마저 늘 저조했습니다. 청남 한 명을 두고 가르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한 명만 가르치는 대신 다른 반과 합반을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암담한 상황을 두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자, 영감이 떠오르며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노력하다

소넨버그 자매의 남편인 켄은 와드의 선교 책임자였습니다. 부부는 와드의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려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고 남편은 일요일 저녁마다 와드의 청소년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먹으면서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소년들이 케이크를 먹는 동안 소넨버그 자매는 그들에게 주일학교에 나오도록 권유했습니다.

이 “달콤한” 권유의 결과, 주일학교 반에는 더 많은 학생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이트라는 청남은 지속적인 권유에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넨버그 자매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누가복음 15:4)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네이트를 위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을 찾아가다

어느 일요일 저녁, 소넨버그 자매는 네이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네이트는 그날 주일학교에 참석하지 않았던 다른 학생과 함께 있었습니다. 소넨버그 자매는 아이들에게 오늘 수업에 오지 않아서 아쉬웠다고 말하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날 배운 공과를 가르쳤습니다. 최근에 와드 감독에서

해임된 네이트의 아버지는 교사의 끈기 있는 노력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넨버그 자매의 남편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켄, 아내분께 감사하다고 전해 주세요. 자매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네이트와 맥케이를 가르치신 것은 영감받은 일이었습니다.”

그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네이트는 여전히 주일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넨버그 자매는 복음 토론을 위해 네이트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네이트는 친구의 집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소넨버그 자매는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친구의 집에서 네이트를 찾아 내고는 거기서 공과를 가르쳤습니다.

마침내 네이트는 주일학교 반에 다시 나오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마음을 움직였을까?

네이트는 왜 돌아왔을까요?

소넨버그 자매의 초콜릿 케이크 덕분이었을까요?





소넨버그 자매가 집으로 (또 친구의 집으로) 찾아간 덕분이었을까요?

친구나 가족이 교회에 나오라고 권유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인 소넨버그 자매에게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느껴서였을까요?

분명 이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덕분에 네이트는 친구들과 함께 꾸준히 주일학교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

이제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네이트는 쇼핑물에 들렀다가 주일학교 교사와 마주치고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초콜릿을 사드리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이트에게 그토록 큰 사랑을 보였던 소넨버그 자매는 이제 그 사랑을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네이트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9월에 선교사 추천서를 제출했고, 지금은 미시시피 주 잭슨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참석하기 힘들어했던 다른 반원들도 선교 사업을 결심했습니다. 소넨버그 자매가 주일학교 16~17반 교사로 있으면서 가르쳤던 학생 중 다섯 명의 청년과 세 명의 청년이 선교사로 봉사했거나 현재 봉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몇몇은 앞으로 봉사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다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제1장,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에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라는 제목의 토론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활동 회원에게 다가가는 것은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 신권 또는 보조 조직 지도자만의 의무가 아니며, 교사들도 이 일을 도울 수 있다. 가르치는 것은 일요일에 공과를 하는 것 이상의 일이다. 가르치는 일에는 사랑으로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축복을 받도록 돕는 것이 수반된다. 이런 도움은 종종 저활동 반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모두 함께 일해야 하며, 교사인 여러분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¹

소넨버그 자매는 자신이 반원들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주 반원들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축복을 받았으며, 교실에서든 그들의 집에서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모든 교사가 공과에 참석하지 않은 반원들의 집을 매주 방문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그 일이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아주 작은 일로도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진다는 엘마의 말을 기억하십시오.(엘마서 37:6)

사랑으로 권유한다

이 토론 주제 중 “사랑으로 권유한다”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진실한 표현은 복음에 대해 힘겨워하는 반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다. 종종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자신은 필요한 사람이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²

소넨버그 자매가 네이트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한 덕분에 네이트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며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네이트와 반원들은 이제 전임 선교사로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의 모범을 기억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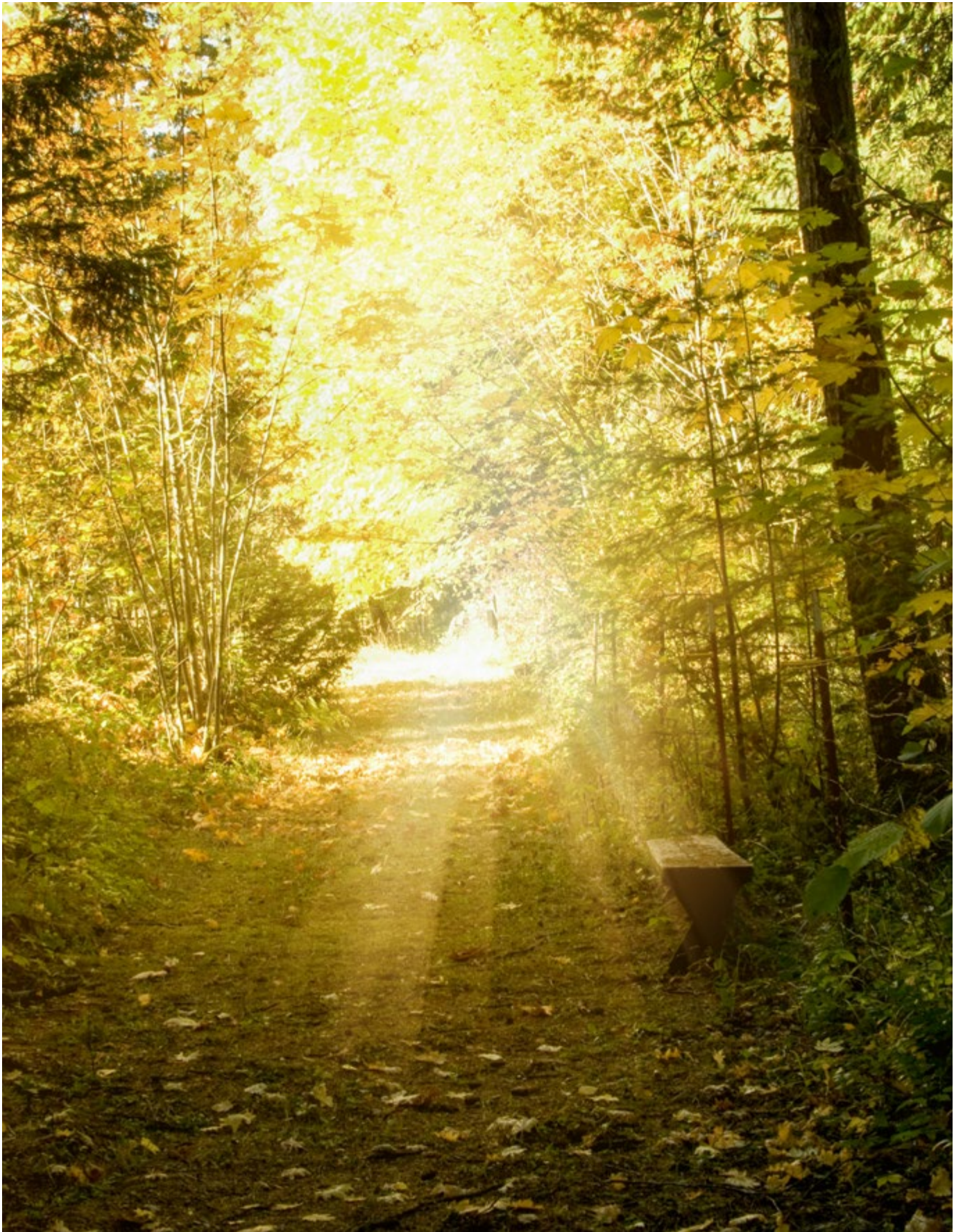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인 우리는 반원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권유하고 있는 전 세계의 주일학교 교사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바로 그 사랑으로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려고 노력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리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

주

- 1.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2016), 8쪽, teaching.lds.org
- 2.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9쪽

구주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면 teaching.lds.org에 있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동영상과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의 다른 동영상들을 시청한다.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행복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들어 보셨겠지만,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자 틀입니다. 그곳에
이르는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행복은 우리의 종착지가 될
것입니다.”¹

저는 행복을 찾아가는 그 값진 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한 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지자 조셉이 선택한
단어에 유념하십시오. 그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행복이라는
목표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 여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 인류가
근본적으로 찾으려 했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서구 세계의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사람은,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총체적인 목표이자 종착지²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마치 미래를 내다보기라도 한 듯 조셉 스미스의
말과 닮아 있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사용한 문구까지



사진: GETTY IMAGES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말했다. “행복은 나비 같다.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교묘하게 달아나 버린다. 하지만 다른 데 열중하고 있으면 어느새 또 날아와 사뿐히 어깨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다.”

거의 일치합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 선언문의 도입부에서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라는 세 가지 위대한 천부권을 (적어도 미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로 묶음으로써 개인적 및 정치적 탐구를 영원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세 가지 항목을 들여다보면, 행복은 (생명 및 자유와 같이) 그 자체가 권리로 명시되지 않고 행복의 추구가 권리로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리고 미숙하며 조금은 두렵기도 한 우리 앞에 삶이 오르기 힘든 산처럼 눈앞에 버티고 있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추구”해야 할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행복은 곧장 달려가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너무도 막연하고, 쉽사리 사라지며, 미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행복에 대해 배우지 못하셨다면, 행복은 대부분 전혀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 그리고 다른 일을

하느라 분주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장차 알게 되실 것입니다. 행복은 거의 항상 다른 일에 열중하던 중에 뜻하지 않게 얻게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 가장 좋아했던 작가 중 한 명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나비 같다.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교묘하게 달아나 버린다. 하지만 다른 데 열중하고 있으면 어느새 날아와 어깨에 사뿐히 앉아 있을 것이다.”³ 이 말은 복음의 위대한 모순 중 하나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중될 자[가] 먼저 [되리라]”(마태복음 19:30; 교리와 성약 29:30),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태복음 16:25 참조) 같은 말처럼 말입니다. 복음은 그런 모순과 우회로 가득하며, 저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또한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너무 직접적으로 추구한 나머지 행복을 놓치게 되는 일 없이, 어떻게

행복을 얻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답을 찾기 위해 가장 놀라운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의 방식을 좇아” 살아간다는 것

물론경 역사의 첫 30년은 행복한 이야기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리하이와 새라이아의 가족은 서로 적대감이 워낙 강해진 나머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한 무리는 피에 굶주린 다른 한 무리의 희생양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광야로 더 멀리 달아납니다. 첫 번째 무리가 급작스럽게 낮은 땅으로 들어가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찾고 삶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절반이 되어 버린 이 니파이 가족의 선지자이자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방식에 따라] 살았더라.”(니파이후서 5:27)

그들이 지난 30년 동안 겪은 일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시련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거의 고통스럽게 들릴 정도입니다. 대체 그 어떤 부분이 조금이라도 “행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니파이는 분명 자신들이 행복했음에도 행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들은 “행복[의 방식을 좇아] 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 속에 앞으로 여러분의 앞길에 평생 동안 귀한 축복이 될 훌륭한 열쇠가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 생활 동안 겪게 되어 있는 시험과 시련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영광 중의 하나님도,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지상의 선지자들도 언제나 모든 면에서 우리를 행복하게만 해 주려 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셨던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님은 “행복은 [상자에 담겨 있어 그저 그 상자를 열기만 하면 언제나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행복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과 역사를 통해 얻은 가르침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에 따라 어떤 단계를 따를 수 있고, 어떤 습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행복이란 나비가 어깨에 앉을 가능성이 더 커지리라고 확신하며 말입니다.

즉,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대로 생활하며, 행복한 사람들이 걷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쁨을 찾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평화를 느끼며, 천사들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순간에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놀랄 만큼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행복의 방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대로 생활하십시오

궁극적인 행복, 참된 평화, 그리고 경전에서 말하는 기쁨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껏 여러 다른 철학과 신앙 체계를 통해 그런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역사를 통틀어 모든 철학과 신앙 체계를 통해 시도해 보았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도 도마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문제를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흔히 이 말은 이렇게 옮기곤 합니다. “행복해지는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예수께서는 영원토록 올려 퍼질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한복음 14:6, 13~14)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내 길과 진리, 생명을 따라
살아가거라. 내가 보여 주고 가르쳐 주는 이 방식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행복을 비롯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될
것이요, 무엇을 찾든지 찾게 되리라. 금방 오는 축복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오는 축복도 있으며, 죽을 때까지 오지 않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슬픔에 잠긴 월요일, 눈물 젖은 화요일, 지친 수요일을
사는 우리에게 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입니까! 또한, 축복은
다른 어떤 길이 아닌 영원한 진리에 헌신함으로써 주어지리라고
약속되었습니다.

약 한 세기 전,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은
새로 성임되셨을 당시에 만족이나 기쁨, 흥분과 달리 참된
“행복은 오직 영생으로 인도하는, 끈고 좁지만 잘 다져진
[복음의] 길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⁵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십시오.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행복은 많은 부분 여러분에게 달려 있음을 최대한
빨리 배우십시오. 행복은 중요한 사건이나 상황, 운과 불운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전세의 평의회에서 선택의지를 두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으며, 선택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복 그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다 해도 행복해지는 방식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가장 힘겨운 상황에서 정국을 이끌며 불행할
법한 일을 아주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 사람은
스스로 정하는 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⁶

실제적인 행복이 아직 찾아오지는 않았다 해도, 그리고
그것이 멀리 있다 해도, 행복은 먼저 생각의 형태로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리버티 감옥에서 아주
불행한 상황에서도 “행복의 방식을 좇아” 생활했으며, 자신과
같이 불의와 박해의 희생양이 된 바깥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121:45~46)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이 말씀은 현대의 역병과 같은
외설물에 대한 훌륭한 조언일 뿐만 아니라, 온갖 복음에 관한
생각, 선한 생각, 건설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을 아우르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신앙으로 채워지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계시를 받았습시다.(교리와 성약 64:34)

너무 자주 우리는 중요한 것이 진심, 즉 우리의 마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복과 평안을 찾기를
또한 기대하십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전쟁이지만 그냥 전쟁이
아니라 행복을 얻기 위한 전쟁이며, 치열하게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전쟁입니다.

몇 해 전 어떤 저자는 자신의 유명한 저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행복은 개인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는
행복을 얻고자 싸우고 노력하며, 고집하고 기대한다. 우리는
자신만의 축복을 창조하고자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행복한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는 절대 느슨해지지 말고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물에 떠 있기 위해 헤엄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행복을 향해 계속 헤엄쳐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야 한다.”⁷



저는 “자신만의 축복을 창조하고자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수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행복을 향해 헤엄쳐 나가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즉, 이는 행복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한 단면입니다.

친절하고 기분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동안, 혹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거나 불쾌하게 대하면서 본인은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에 이 위대한 진리를 배우십시오.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아 올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어리고 자신이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금만 깎아내리면 행여 기적과 같이 내가 돋보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따돌림이 일어나고 가시 돋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오만과 천박함, 그리고 우월주의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저 남들처럼 부정적이고 냉소적이며 비열하다면 사람들에게 대한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게 될 것이며, 그렇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결점만 찾아 깎아내리다 보면 내 결점은 눈에 띄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사람은 부정적이거나 냉소적이거나 사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방식”을 따르려면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인생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친절과 유쾌함, 그리고 신앙에 기초를 둔 낙천적인 태도라는 점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제가 인생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친절과 유쾌함, 그리고 신앙에 기초를 둔 낙천적인 태도라는 점입니다.



**근면하십시오. 일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한 훌륭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사람은 누구든 더 기분 좋고 행복한 마음으로 떠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드러나는 살아 있는 본보기가 되십시오. 얼굴과 눈, 미소와 따뜻한 인사로 친절을 보이십시오.”⁸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반감과 분쟁, 분노를 피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적인 루시퍼, 곧 사탄은 분노를 사랑합니다. 그는 “분쟁의 아버지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합니다.(제3니파이 11:29)

여러 해 전 연차 대회에서 칠십인 정원회 일원이신 린 지 로빈스 장로님은 이 성구를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동하다라는 단어는 마치 재앙을 만들어 내는 요리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요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노여움을 중간불에 올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몇 가지 자극적인 단어를 넣고 충동적이 되도록 잘 저어 줍니다.

계속 충동질하여 펄펄 끓게 만든 뒤 걸쭉해지게 합니다. 그런 다음 감정의 골이 굳어지도록 차갑게 식히고, 감정이 냉랭해지게 며칠간 그대로 둡니다. 그렇게 차가워진 관계를 접시에 담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재앙만이 남습니다.”⁹ 실로 재앙만이 남습니다.

분노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립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분노를 품는다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서 남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는 무엇인가를 녹이는 데 쓰려고 용기에 담아놓았으나 정작 쓰기도 전에 먼저 용기를 녹여 버리는 독한 산입니다. 분노의 사촌 격인 폭력, 노여움, 고통, 증오 역시 분노와 마찬가지로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저는 “행복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분노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적어도 분노를 키우거나 분노를 품고 있거나 분노에 몰두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고려해야 할 많은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니파이는 30년의 고난 끝에 새로운 땅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니파이는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근면하게 하였고, 자기 손으로 일하게 하였느니라.”(니파이후서 5:17) 반면,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들은 “악행과 간교가 가득한 게으른 백성이 되”었습니다.(니파이후서 5:24)

공부나 선교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직장 생활이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노력하십시오. 일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부지런히 봉사하십시오. 게으름과 해로운 행동을 멀리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올바른 일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고결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으름을 멀리하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십시오.(교리와 성약 88:118) 근면하십시오. 일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 훌륭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엘마가 코리엔톤에게 준 간단한 권고를 들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품는 격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엘마는 충실한 이들은 부활할 때 “끝없는 행복”의 상태로 들어 올려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엘마서 41:4) 그런 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의 소원대로 행복[에 이르리라]”고 덧붙였습니다.(엘마서 41:5)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엄중한 경고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개 없이] 죄에서 행복으로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엘마서 41:10; 강조체 추가)

죄는 “행복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반대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엘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요, … 하나님의 본성과 상반되게 나아갔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행복의 본질과 상반되는 상태에 있느니라.”(엘마서 41:11)

범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성, 즉 참된 행복의 본질과 일치하게 생활하려면 범법을 피하십시오. 저는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따라 걸어”가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곧 하늘에 계신 영원한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또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분의 독생자가 치르신 속죄를 통해 올바른 길이 주어졌음을 간증합니다. 그 속죄는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작, 즉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해 주며, 또한 필요하다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참된 행복에 이르지 못함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면서 어느 곳에서든 마음속에 의로운 소망을 품고, 여러분을 그러한 축복으로 이끄는 “방식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구합니다. ■

2014년 9월 23일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에서 열린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 “Living after the Manner of Happiness[행복의 방식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은 web.byui.edu/devotionalsandspeeches에서 볼 수 있다.

주

1.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5:134.
2. See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trans. H. Rackham (1982), 31.
3. Henry David Thoreau, *Thoreau on Nature: Sage Words on Finding Harmony with the Natural World* (2015), 72; 또한, 이 인용문은 나다니엘 호돈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한 사람에게 현사되었다.
4. 제임스 이 파우스트, “행복의 추구”, *리아호나*, 2000년 10월호, 2쪽.
5. David O. McKay, Conference Report, Oct. 1919, 180; 강조체 추가.
6. 이 인용문은 프랭크 크레인 박사가 에이브러햄 링컨에게 바친 말이다. *Syracuse Herald*, Jan. 1, 1914 (quoteinvestigator.com/category/frank—crane).
7. Elizabeth Gilbert, *Eat, Pray, Love: One Woman's Search for Everything Across Italy, India and Indonesia* (2006), 260.
8. Mother Teresa, Susan Conroy, *Mother Teresa's Lessons of Love and Secrets of Sanctity* (2003), 64.
9. 린 지 로빈스, “자유 의지와 분노”,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80쪽, 번역 수정.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을 무리 안으로 포용하기

새로운 회원과 다시 교회로 돌아온 회원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편집자 주: 새로운 회원과 다시 교회로 돌아온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끝까지 충실하게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다른 이들을 무리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본다. 12월호에서는 스스로 교회에서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잘 어울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다룰 것이다.

벤티 밴덴버그

멜 리사는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침례를 받은 지 한 달이 안 되었을 무렵 성찬식에서 개회 기도를 했다.(모든 이름은 가명임) 멜리사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게 되어 떨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이니 잘할 수 있겠다는 강한 자신감이 들었다”고 회상한다. “사실 지난 수년간 기도를 해 왔어요. 교회에 대해 알아볼 때는 더욱 열심히 기도했지요. 그러면서 저는 성신이 저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 나중에 멜리사는 자신이 성찬식에서 했던 그 기도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매우 상세히” 설명한 한 와드 회원의 이메일을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수치심과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의심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바로 그때 자신을 가르쳤던 귀환 선교사에게 전화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멜리사는 말한다. “장로님은 그 회원이 그런 식으로 저를 비판한 것은 정말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감독단은 절대로 다른 회원을 통해 제게 그런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실 저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음이 놓인 멜리사는 와드에서 활동적으로 생활하며 부름을 받아들였고 계속 신앙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좌절감을 안겨 준 그 이메일로 인해 받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신감을 되찾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렸다.

불행히도, 이것은 멜리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새로운 회원과 다시 교회로 돌아온 회원 중에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이가 많은데, 사실 그 어려움은 피할 수 있음직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간증이 강한 이들조차도 소외감을 느끼면 계속 충실하기가 어렵다. 교회 지도자들은 최근에 나온 *다양성 안에서 하나가 됨*이란 동영상



시리즈에서, 회원들에게 다른 사람의 기분을 더욱 헤아리며 더 큰 포용력과 사랑으로 서로 교류할 것을 권유한다.

다음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회원들은 어떻게 이러한 원리를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진정한 우정을 보이고 정서적으로 북돋워 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신앙 안에서 친구가 된다

“누구든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 순간 자신이 환영받고 사랑받으며 고양되고 영감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신앙 안에 친구가 있기에 교회에 가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캐럴 에프 맥콩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멜리사는 와드 내에서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편하게 다가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했다. 남편과 딸은 함께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터였다.

“교회에 와서 다른 가족들을 보면 더욱 외로웠어요.” 멜리사는 말한다. 모든 사람이 친절했지만, 멜리사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조차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나는 절대로 몰몬이 지닌 저 빛을 얻지 못할 거야.”

멜리사에게는 자신을 가르쳤던 귀환 선교사 외에, 온라인상에서 자신에게 처음으로 교회를 소개해 준 신디라는 친구가 있었다. 신디는 말한다. “참 힘들었어요. 멜리사가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건전하고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랑이 많은 다양한 회원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친구들은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멜리사를 도와주고 멜리사와 친구가 되어 주었죠.”

멜리사는 와드에서 자리 잡는 동안 이 그룹에서 소속감을 느꼈으며, 생활방식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었다. 멜리사는 “어릴 때부터 주로 민소매 옷과 반바지를 입고 자랐다”고



말한다. 그래서 온라인 친구들이 근처 옷가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정한 옷들을 사진으로 보내 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그 덕분에 이제 멜리사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몇몇 영화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와드의 자매들에게 괜찮은 영화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다.

멜리사는 조언을 구한 것이 친구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사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치 않은 조언을 들으면 소속감보다는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느낌을 받기가 쉽다.

후에 멜리사는 상호부조회 교사로 부름받았고 그 부름을 통해 와드 회원들과 소통할 기회를 얻었다. 멜리사는 자신이 새로운 회원으로 적응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뿐 아니라 자폐가 있는 자녀에 관한 문제나 개인적인 건강 문제, 심지어 위독한 반려견 이야기까지 자매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다. 공과 시간과 사적인 대화를 통해 자매들이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도 귀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멜리사는 깊은 치유를 경험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관계를 통해 마침내 신앙 안에서 진정한 친구를 얻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사람을 포용한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강조체 추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 그분을 모범으로 삼으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자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캐나다에 사는 구도자인 로버트는 다양한 후기 성도 모임과 활동에 참석했다. 로버트는 여러 종교를 연구해 봤지만, 이 교회의 교리와 물문경에서 얻은 영감 덕분에 계속하여 교회에 대해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는 교회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종교 교육원에 다니는데, 그곳의 분위기가 “신선할 정도로 건전하고, 친절하고,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라고 하며, “몰몬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입니다.”라고 덧붙인다.

자신을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로버트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면서도 이렇게 말한다. “저는 보통 구석에 앉아 별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요. 종교 교육원 반원들과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생활해 온 사람들은 굳이 새 친구가 필요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소외감을 떨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로버트는 활동 시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린다. “저녁을 먹은 뒤 누군가 제게 다가오더니 남아서 같이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안 그랬으면 집에 갔을 텐데,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저 누군가가 저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회원 및 구도자들과 성공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제언

-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다른 회원들에게 그들을 소개한다.
- 집이나 다른 활동에 초대하여 일요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친구가 되어 준다.
- 그들의 말을 들어 주고 그들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만한 질문을 한다.
- 내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모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다.
- 그들이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주고, 조언을 구해 오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 교회와 관련된 지침은 신권회와 상호부조회의 지도자들로부터 받게 한다. 회원들은 좋은 친구가 되어 주는 것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 그들의 진척 상황을 나를 비롯한 누구의 그것과도 비교하지 않는다.
- 교회의 문화적 성향이 아니라 기본 교리를 가르친다.
- 온라인에서 새로운 개종자, 구도자, 저활동 회원에게 도움을 줄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보통 직접 만나 우정을 쌓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된다.

충분했어요.”

멜리사와 마찬가지로 로버트도 후기 성도 친구들이 교리에 관해서는 설명해 주면서도 교리에 따라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감사하다. 훈계하기보다 경청해 주는 친구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 친구는 더 빨리 가라고 뒤에서 밀기보다는 옆에서 같이 걸어 주는 사람과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발을 헛디디고 넘어지기 마련이니까요.”

로버트는 담배를 끊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교회 활동이나 모임에서 가끔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 사실은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이 기존 회원들과의 다른 점을 그들 스스로 얼마나 잘 인식하는가를 말해 준다. 그는 말한다. “누군고 저에게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방금 세탁한 옷이 없을 때는 저 스스로 종교 교육원이나 교회를 안 가고 말지요.”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그들을 포용한다면 그들은 더 큰 소속감을 느낄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상처 입기가 아주 쉬운 누군가가 찾아와 ... ‘이곳에 있고 싶어요.’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대와 무관심뿐이라면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Is There a Place for Me?” [동영상], [lds.org/media-library](https://www.lds.org/media-library))

먼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한다

“먼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인생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앉아 있거나 사람들과 떨어져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 비 빙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네덜란드에서 교회의 회원이 된 엘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정한 유대 관계를 경험했다. 그러나 청년 독신 성인인 엘사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녀의 새로운 종교적 믿음과 생활방식을 불편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외로움을 느꼈다. 엘사는 이렇게 말한다. “회원들이 저에게 해 준 가장 고마운 일은 교회 밖에서도 기꺼이 친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이미 엔다우먼트를 받았는데도 저와 함께 성전에 가서 대리 침례에 참여해 주신 회원도 있었어요. 일요일이 아닌 날에도 회원들과 교류해야 힘을 얻고 끝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엘사가 최근 개종자로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갑자기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기대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축약어, 행사, 부름 등등 알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좀 벅찰 때가 있어요. 가끔은 사람들이 제가 더 빨리 배우지 못한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도 돼요.” 그뿐 아니다. 엘사도 다른 많은 사람처럼 “예매당 뒤쪽에 앉아 거의 소통을 하지 않는” 대인 관계 불안 증상을 경험한다. 대규모 그룹은 벅차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엘사는 회원들이 자신을 참여하는 데 소극적인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걱정이다. “공과에 참여하거나 찬송가를 크게 부르거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녀는 말한다. “그저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뿐이에요.”

맥콩키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일요일마다 영감과 힘을 얻으려고 교회에 왔다가 평가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며,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압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엘사는 남을 판단하지 않는 회원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분들은 제가 처한 곤란한 문제에 귀 기울여 주시면서도 저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지는 않아요. 제가 회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배우는 동안, 그분들은 진지한 마음으로 인내해 주세요.” 엘사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선교사들과 함께 새로운 회원과 구도자들을 찾아 도움을 주려고 한다. 엘사는 말한다. “새로운 회원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잘 알아요. 저를 절망에서 구해 주었던 이 복음의 은사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복음대로 살고 제자가 된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은사와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배경, 그들이 처한 어려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 즉 교리적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문화적인 부분들을 걷어 낸다면,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전에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짐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복음과 교리가 참됨을 증거하는 성신으로부터 분명한 영적 증거를 얻은” 덕분이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되었던 한 가지는 후기 성도 문화에 적응하는 일이었다.

그는 침례를 받은 뒤, 회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는 행동 대부분이 교리적이기보다는 문화적인 성질의 것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물론 기성 종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만일 제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제게 문제는 복음이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문화적으로만 느껴지는 부분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설명하듯이, 우리는 새로운 개종자와 구도자, 그리고 다른 이들의 도움을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비교리적 관행을 버리고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야 한다.

옥스 장로는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의 장점을 높이 사며, 후기 성도들에게 차이점에 집중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고 권유한다. “당신은 어떤 배경과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러한 열린 마음과 포용적인 태도를 보고 소속감과 사랑을 느끼고 마음이 고양되며,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고린도전서 12:27] 안에서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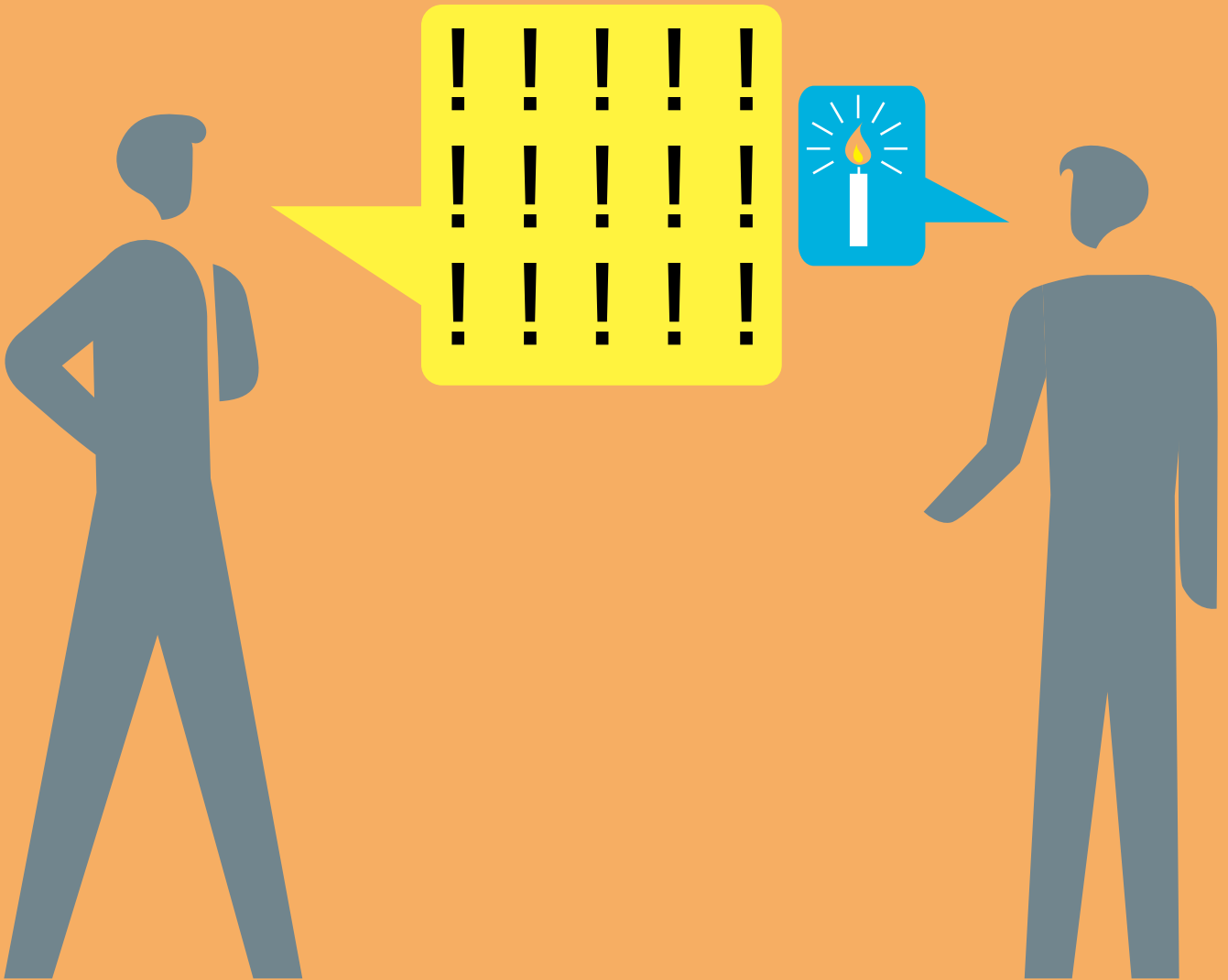
현대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듯, 사도 바울 또한 고대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는 것을 우려했다. 바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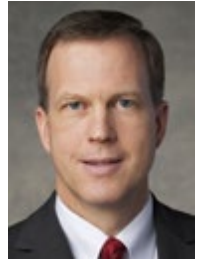
회원들 중 강하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에게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관행 때문에 동료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이렇게 전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고린도전서 8:1) 그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을 것이며, 회원들 사이에 서로 달리하는 방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만 집중하라고 요구했다.(고린도전서 1:10; 2:2)

오늘날, 현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다양성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촉구하면서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라고 권유한다. 이 일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다.(에베소서 4:13) ■

다양성 안에서 하나가 됨을 시청한다.

lds.org/go/unity917에서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이 담긴 짧은 동영상 시청한다.





외르크 클레빈가트
장로
칠십인 정원회

신앙을 수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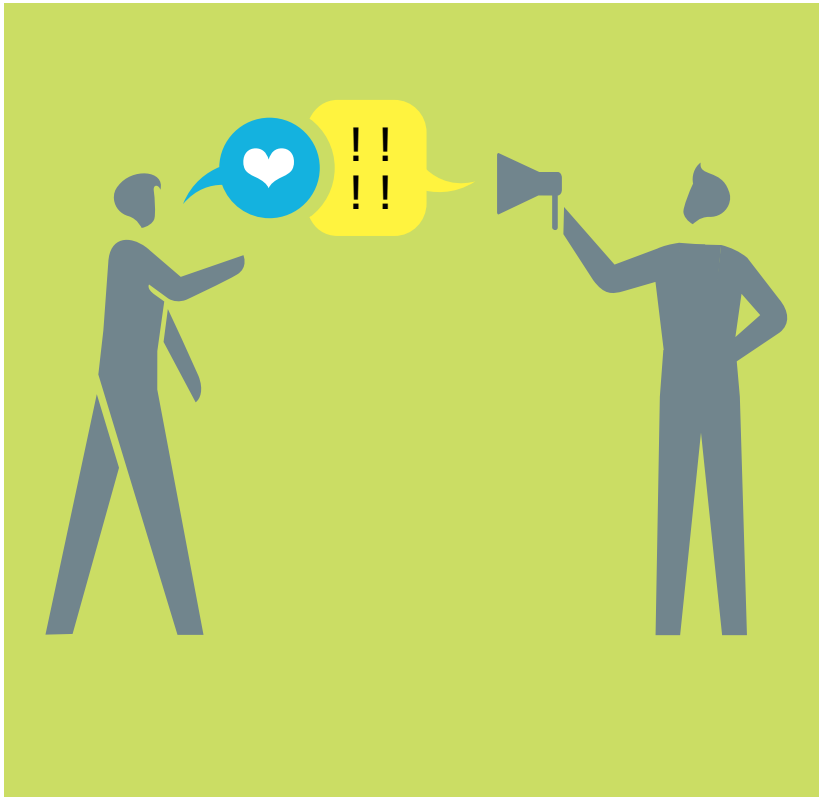
주님께서는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수호할 의지와 그렇게 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전 세에서 우리는 선택의지와 논리력, 그리고 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좇아 ... 부름을 받고 예비되었”으며 처음에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었”습니다.(앨마서 13:3, 5) 그곳에는 성장하고 배울 기회가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든 똑같이 사랑 넘치는 하늘 집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지만, 듣고 배우고 순종하겠다는 소망마저 모두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그때도, 우리는 선택의지를 행사하면서 서로 다른 수준의 흥미와 의지를 품고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중에는 배우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전쟁이 임박하여 전세의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전세의 영들은 아버지의 계획을 지지하거나 등질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진리를 가르치는 자도 있고 반박하는 자도 있었으며, 간증하는 자도 있고 간증을 비웃는 자도 있었습니다.

중립은 없다

결국, 이 갈등 속에서 우유부단하게 중립지대로 물러서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분의 신성한 역할에 대한 간증에 힘입어, 영적인 지식이 있고 그분의 신성한 이름을 수호하고자 그 지식을 사용할 용기가 있는 이들은 이 언쟁의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요한은 그 용감한 영들과 다른 영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주님께서는 이 회복된 복음이 어떤 측면에서라도 반박당할 때, 온유하고 애정 어린 태도로 기꺼이 진리를 간증할 진정한 후기 성도들을 많이 필요로 하십니다.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루시퍼를 이겼다고 가르쳤습니다.(요한계시록 12:11; 강조체 추가)

그렇습니다. 구주가 오시고 그분께서 젓세마네와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시리라는 약속이 천국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우리가 지녔던 용기와 간증, 그리고 다른 영들에게 설명하고 그들과 이치를 논하며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우리의 의지 또한 거짓이 퍼져 나가는 것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세에서 주님을 수호하는 의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투에서 우리를 검증하셨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용기를 확신하신 주님께서는 후에 우리 이스라엘 집의 일원들을 일컬어 “나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이사야 43:10) 우리도 자문해 봅시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합니까?

오늘날의 전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쟁취하기 위한 전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의 가르침에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 사이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도덕적으로 무섭게 추락하고 있는 이 세상은 회복된 복음 진리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빛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어둠을 따른다고 비난하며, 그들의 의도와 노력의 달콤함을 쓴 것으로(이사야 5:20 참조) 치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은 주님의 회복된 교회와 그분의 충실한 종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니파이전서 8:27 참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를 파멸로 끌어내리려는 유혹이 주변에 온통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길에 빠지지 않으려면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 회원이라 해도 소극적이고 책임감 없는 태도로는 이 후기의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도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홀로 서게 될 것을 무릅쓰고라도 믿음을 굳건히 수호할 도덕적 용기가 있습니까?”

크고 넓은 건물(니파이전서 8:26~27 참조)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소음을 뒤로하고 사람들이 많이 걷지 않은 길을 따라 결연히 나아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습니까? 진심 어린 질문을 하는 이들과 기꺼이 정중한 태도로 토론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며, 또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논쟁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된 가르침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수호할 수 있으며, 또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무례하지 않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 … 려 힘쓰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진리에 대한 결의를 약화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³

용감해지십시오

문슨 회장의 다음 권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증이 생기면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 우리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고 용감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홀로 서야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곁에 설 때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임을 아는 지식으로 힘을 얻어 용감하게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⁴

교회의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노력도 없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교회의 용감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복음대로 생활하여 우리가 지닌 빛을 발하라고 가르치셨지만, 일부 회원들은 등불을 말 아래에 뚫으로써 자신이 회원인 것을 감추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간혹 복음과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하기는 하지만 간증하고 권유하기는 주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아다니며 기꺼운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신앙을 수호하는 이가 몇이나 됩니까?

오늘날의 언쟁에서 고지를 탈환하여 지켜 내기 위해,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살아 있는 선지자들, 선지자 조셉 스미스, 몰몬경, 그리고 교회의 표준을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수호할 의지와 그렇게 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베드로전서 3:15)하고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또한 이 회복된 복음이 어떤 측면에서라도 반박당할 때, 온유하고 애정 어린 태도로 열렬히 진리를 간증할 진정한 후기 성도들을 많이 필요로 하십니다.

모로나이 장군의 모범

우리 시대에 진리의 용감한 수호자가 되기에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일들으로써 능력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몰몬경에서 모로나이 장군은 “백성의 마음이 주 그들의

하나님께 충실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앨마서 48:7) 그는 개인적인 순종에 토대를 둔 삶이 첫 번째 방어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 보루들[을] 구축하되, 주위로 흙독을 쌓아 올[렸고] … 그 땅 주위를 다 돌아가며 석벽을 쌓”았습니다.(8절) 또한, 확실한 방어 조치를 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방어 시설이 가장 약한 곳”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기도 했습니다.(9절) 모로나이 장군의 예방책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적군은 “심히 놀”라(앨마서 49:5) 사악한 계략을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처럼 나약한 사람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을 용감하게 수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교리와 성약 64:34)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나약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용감한 영을 부여받은 세상의 “작고 단순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신병들입니다. 주님께서 “작은 방편”으로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앨마서 37:6, 7 참조) 회복된 복음과 그 교리 및 지도자들을 나누고 수호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다음 제언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수호할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강력한 방어 전략은 강력한 공격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지킬 대상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만, 관심조차 없는 것은 방어 자세를 하지 않게 됩니다. 양을 돌보는 대가로 샷을 받는 샷꾼은 조금이라도 위험이 생기면 바로 양을



버리고 달아나기 마련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대의가 공의롭고 참되다는 것을 영적으로 확신하지 못한다면 방어선을 그리 오래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증거하고 수호하려면, 그분이 살아 계시며 이곳이 바로 그분의 회복된 교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합당성과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리나라 이해력과 강렬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에 비해 이들은 진리를 증거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2. 자신의 방어 시설을 평가해 보십시오. 모로나이 장군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정직하게 평가해 보고 강한 부분은 무엇이고 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며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경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간증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은 물론, 특히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도 경전에 근거하여 답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거나,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질문자를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부지런히 연구하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확신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3. 자신의 방어 시설을 강화하십시오. 자신의 교리적 “방어 시설”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것을 앞에 놓고,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만들겠다는(이더서 12:27 참조)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와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모세의 외침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민수기

11:29) 여러분이 작은 부분이나마 매일 노력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방벽에 흠을 쌓아 주시기를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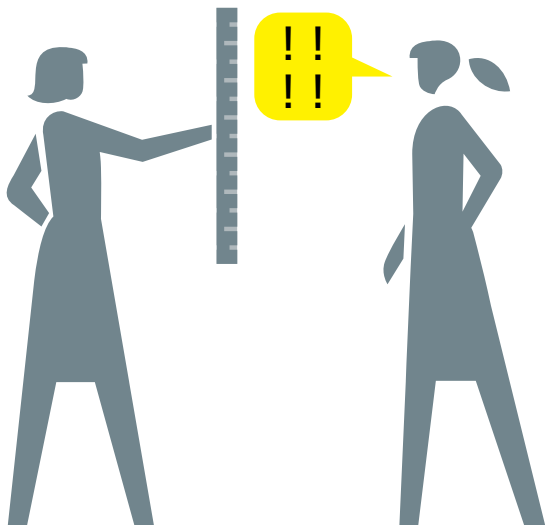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익숙한 부분만 곁핥기식으로 읽지 말고 경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십시오. 교리 공부 노트를 만들어 계속 작성해 나가십시오. 주제마다 자기 생각과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관련 성구들을 찾고 그것을 논리적인 순서로 압기해 보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1928~2015)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경전이 기록될 때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대로 경전을 활용하면, 그 말씀에는 다른 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할 때에는 전달되지 않는 본질적인 힘이 담깁니다.”⁶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도 몇 부분 암기해 보십시오. 보통은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만 성신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요한복음 14:26 참조) 그리스도에 중심을 둔 진정한 교리적 지식은 “[그분의] 영의 검”(교리와 성약 27:18)과 결합할 때 가장 강력한 방어 시설이자 공격 무기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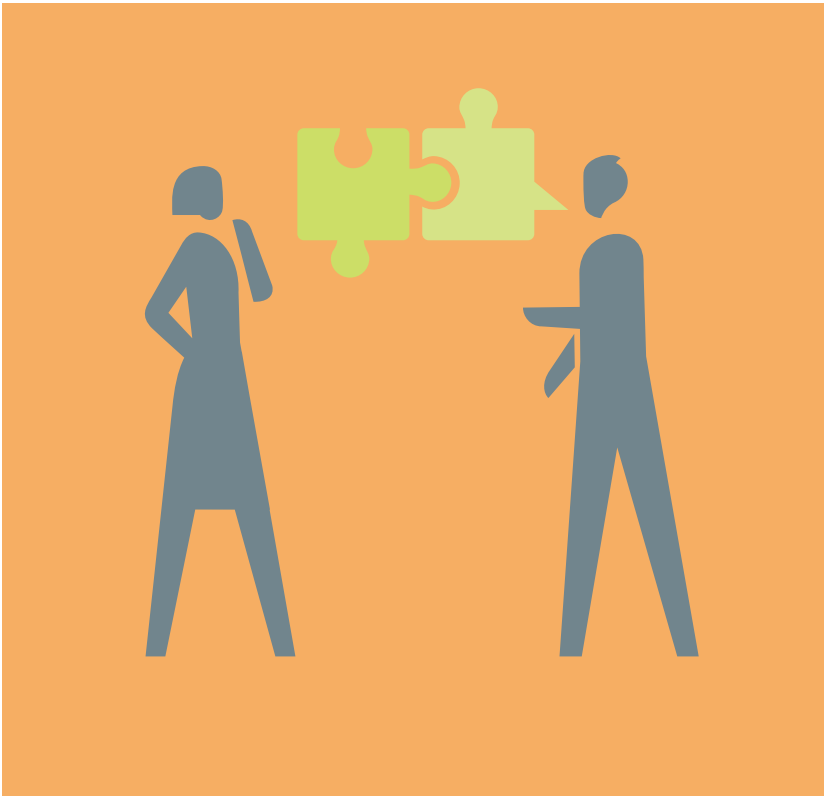
4. 연습한다. 교회의 전임 선교사들은 그들이 처할 만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역할극을 해 보도록 권고받습니다. 여러분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교회를 수호해야 하거나 교리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교사들의 모범을 따라 **육에 속[한]** 대화를 나누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하십시오.(모세서 3:5, 7 참조) 복음 표준을 가르치거나 수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전에 먼저 역할극으로 연습을 해 보십시오. 혼자서, 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상의 질문을 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더 많이 준비될수록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느끼는 자신감이 “점점 더 강하여”질 것입니다.(힐라맨서 3:35 참조) 짧고 간단한 대답부터 시작하십시오. 대부분 상황에서 그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성구를 공부하고 다양한 교리들을 연결할 수 있으면 방어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5. 기회를 찾는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면 겸손히 그러나 자신 있게 복음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복음을 수호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낙담은 능력의 결여가 아니라 용기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⁷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과 복음 표준을 나누고 수호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사랑하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교리라고 해서 모른 척하거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노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아이도 간단한 간증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수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복음 학자가 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질문의 답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거나, “이 비밀이 아직 내게 완전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삼가”겠다고(앨마서 37:11) 말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로마서 1:16) 거짓이나 왜곡된 진실을 눈 감아 주고 참아 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리를 이해하고 수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침묵을 지키게 된다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영의 속삭임을 따르고 있어서이기를 바랍니다.(예를 들어 앨마서 30:29 참조)



적극적인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눈과 함께 신앙, 소망, 자애와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자격”을 갖추게 하십시오.(교리와 성약 4:5)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시나 연약하지 않으셨고, 권유하시는 한편 꾸짖기도 하시되,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제3니파이 11:29)

사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도덕 및 교리적 표준을 끊임없이 뒤흔드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살아 있는 증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연하게 선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띤 이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선하게 이바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로 더 좋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 문제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어둡고 사악한 도전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는 평범함을 넘어서고 무관심을 떨쳐 낼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옳은 일에 몸담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⁸

회복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닌 빛을 환하게 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후기 성도 용사가 되십시오. 복음대로 생활하고 그 복음을 수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개종의 깊이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원합니다.■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용감하게 홀로 서라”,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0쪽, 번역 수정.
2. “The Road Not Taken,” *The Poetry of Robert Frost*, ed. Edward Connery Lathem (1969), 105 참조.
3. 맬린 에이치 옥스, “타인을 사랑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26쪽.
4. 토마스 에스 몬슨, “용감하게 홀로 서라”, 67쪽.
5. topics.lds.org에 실린 복음 주제 글은 특히 교회의 역사와 교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데 유용하다.
6. 리차드 지 스코트,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06쪽, 번역 수정.
7. 닐 에이 맥스웰, “비록 내가 연약하나,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13쪽.
8. Gordon B. Hinckley, “Stand Up for Truth”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Sept. 17, 1996), 2; 강조체 추가.

짧고 간단한 대답부터 시작하십시오. 대부분 상황에서 그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성구를 공부하고 다양한 교리들을 연결할 수 있으면 방어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사진 삽화: 데이비드 스토크. 사진 모델은 이야기 속 실제 인물이 아닌.

딸의 자살 후 고통에서 구원받다

딸 아이가 목숨을 끊어 버린 후, 내겐 이 시련을 견디도록 도와줄 가족이 없었다. 그러나 내 곁에는 가족과도 같은 우리 와드가 있었다.

르 에타 소프

일

마 전 친구가 던진 질문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일에 관해 궁금할 만한 것들이 많겠지만, 그 친구는 딱 한 가지를 궁금해했다. 그 질문이란, “열다섯 살 된 네 딸이 자살한 뒤에 교회는 어떻게 널 도와주었니?”였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어. 난 사람들을 전부 밀어내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면서 말도 못할 외로움으로 괴롭기만 했어.”

하지만 며칠을 생각한 끝에, 나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알게 되었다. 물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공포를 느끼며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딸 나탈리는 이미 숨이 멎은 채 병원으로 실려 갔고, 나는 충격에 빠진 채 그 자리에 있었다. 몸도 마음도 아무 느낌이 없었다. 눈앞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경찰은 질문을 퍼부었고, 친구들은 흐느껴 울었으며, 의료진은 상황을 알려 왔다. 전부 흐릿하고, 또 전부 또렷했다.

우리가 전에 다니던 와드의 감독님 부부가 생각난다. 내 동료가 감독님 부부에게 연락을 해 주었다. 나와 나탈리는 바로 몇 달 전에 그 와드를 떠난 터였다. 감독님 부부는 정말 좋은 친구였다.

내 딸과 이름이 같은 감독님의 부인은 나에게 그분 맥에서 같이 지내자고 하셨다. 그리고는 그 맥 차를 타고 전에 살던

동네로 갔던 것 같다. 나는 시간에 대해 전혀 가늠이 없었다. 다만

이튿날쯤 감독님과 또 다른 한 친구에게 신권 축복을 받았던 것 같다.

분명 장례 절차를 전부 설명 듣고 그대로 했을 텐데,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챙길 정신은 없었다. 옷을 입으라고 하면 옷을 입었고, 어디를 갈 테니 차에 타라고 하면 차에 타는 식이었다. 마치 간단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된 것 같았다.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까지 나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나탈리의 장례식은 아름다웠다. 많이들 웃고 우는 가운데 풍성한 영이 함께한 자리였다. 다른 주에 살던 내 큰딸 빅토리아가 유타 주로 왔고, 동생을 위한 노래를 써서 장례식에서 불러 주었다. 장례식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잘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비용은 모두 지급되었다. 전부 교회 회원들의 기부를 통해서였다.

그때까지도 나는 감독님 맥에서 지내고 있었다. 와드의 회원들은 내가 지낼 새집을 알아봐 주고 계셨다. 지하에 있는 예쁘고 아담한 집 하나가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내가 계약서에 서명을 했던 것 같다.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었다. 감독님 부인을 비롯한 교회 회원들이 알음알음으로 해 주신 일이었다.

와드의 회원들은 짐을 옮겨 주셨고, 나와 막내딸이

정착하도록 도와주셨다. 처음 두 달 치의 집세는 이미 치러져 있었다. 이번에도 역시 교회 회원들의 기부를 통해서였다. 나는 여전히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었고 무감각한 상태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지만, 점점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감정이 살아나고 있었다.

나탈리가 죽은 지 한 달쯤 지나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무겁고 짙은 검은 연기가 조금씩 새어 들어오다가 모든 것을 삼켜 버릴 만큼 부풀어 올라 급기야 눈앞을 새까맣게 덮어 버린 기분이었다. 사람은 슬픔을 있는 그대로 느낄 때 눈앞을 분간하지 못한다.

나탈리는 추수감사절에 떠났고 이제 크리스마스였다. 명절은 상실감을 키워 놓을 뿐이었다. 며칠 동안 실 새 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그러는 동안 고통이 끈질기게 이어졌다. 몇 분이 몇 시간 같았고, 몇 시간이 며칠 같았고, 며칠이 몇 년 같았다.

나는 이혼한 상태였기에 바깥에서 생계를 책임져 줄 남편이 없었다. 할 수만 있다면 한껏 몸을 웅크리고 옷장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틀어박혀만 있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내게 호사였다. 어떻게든 힘을 내서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다.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로 이 혼란을 겪다 보니 직장을 까맣게 잊고 지내고 있었다.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나탈리가 와서 놀다 가곤 하던 곳이라 나탈리 없이 돌아갈 생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1월 첫째 주 무렵이 되어 높지 않은 급여의 일자리를 하나 얻게 되었다. 나는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애쓰느라 실패 없이 움직였다. 그러나 영혼은 죽어 버린 것 같았다. 누구도 내가 몸만 움직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감정을 터트려도 되는 때는 직장을 오가며 차를 몰 때뿐이었다.

그 무렵 나는 조금씩 새로운 와드에 나가기 시작했다. 분명 누군가 안부를 묻기라도 하면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다. 정말 간절히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누구와도 대화는 물론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투명인간이 돼 버리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모든 것을 삼켜 버릴 듯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당시에는 그다지 관심도 없었다. 그저 숨쉬기도 벅잡던 때였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내가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인상을 비쳤을 것이다. 그러나 더러 그들은 따뜻한 미소를 보내 주었고, 나는 거기서 소소한 위로를 받았다. 가장 가까운 문으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던 나를 잡아놓기에 딱 충분할 만큼이었다.

시간이 약이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미 일어난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벌어진 상처는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그 운명 같은 추수감사절은 2011년의 일이었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야 나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마치 전쟁에 나갔다가 심각한 상처를 입은 뒤 구출된 기분이었다. 그 보살핌 덕에 나는 건강을 되찾았고, 그런 사랑을 받은 끝에 이제 홀로 설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다. 간증이 놀랍게 자라기도 했다. 이제 나는 구주의 애정 어린 품에 안기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안다.

그러니 “네가 이 시련을 겪는 동안 교회는 널 어떻게 도와주었니?”라고 물었던 친구의 질문에 답해 보겠다.

“교회는 날 도와준 게 아니야. 구원해 주었지.”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나탈리는 내 삶의 기쁨과 웃음의 근원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허덕이는 동안 내 친구들과 와드 회원들이 준 힘과 지지에 감사하였다.



사진 출처: 데이비드 스토크. 사진 모델은 이야기 속 실제 인물이 아님.



살아남은 이들이 치유되는 법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삶을 마감해 버린 사람이 생기면, 뒤에 남은 사랑하는 이들(유족들)에게는 복잡하고도,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스러운 슬픔의 과정이 시작된다. 혼란, 가책, 자포자기, 거부, 분노와 같은 감정이 격해지고 답 없는 질문들이 이어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놓쳤던가? 왜 나는 성신의 속삭임을 듣지 못했는가? 이 일은 영원한 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등. 유족들은 이러한 질문으로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지는 한편,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자신에게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유족들은 비난받고 판단받으며 오명을 쓰는 것이 두렵고 마음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유족 중에서도 특히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심지어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런 깊은 고통과 분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는 “만물 아래[로] 내[러]가시어”(교리와 성약 88:6; 122:8 참조)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앨마서 7:12)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 하셨다.(히브리서 4:16)

슬퍼하는 이들이 기억할 사항

- 다른 사람, 특히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 자신을 영적으로 돌본다. 선택의지라는 은사를 신뢰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니파이전서 9:6 참조) 또한, 치유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주님의 권능을 신뢰한다.(빌립보서 4:7 참조)
- 자신의 몸을 돌본다. 꾸준히 좋은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며, 운동을 한다.

- (가족, 친구, 감독 등)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지지를 구하고, 이 시기를 겪는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인다.
-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건전한 활동을 한다.
- 전문 상담사와 이야기하고, 자살 사망자 유족 지원 모임에 참여한다.
- 치유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인내한다.

슬픔에 빠진 이를 돌보는 사람이 기억할 사항

- 동정심을 갖되, 책망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의 자비를 적합하게” 내리시는 방법을 이해한다.(교리와 성약 46:15)
- 유족에게 손을 내밀고, 단순한 일이라도 좋으니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함께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 인내하고 경청하며, 그들이 그 상황에서 드러내는 감정을 수용한다.
- “괜찮을 겁니다.” “그만하길 다행입니다”, “어떤 기분이신지 압니다”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등 상투적이거나 무의미한 말은 하지 않는다.
- 답 없는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 설령 나 또한 자살과 관련된 문제가 있더라도 그들의 슬픔과 내 슬픔을 비교하지 않는다.
- 자살한 이에 대해 유족과 이야기할 때, 자살이 아닌 다른 사인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의 유족을 대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말한다.
- 충격을 받은 자녀가 있다면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안심시킨다.
- 슬픔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방법을 더 찾도록 도와준다.(상담, 지원 그룹 등) ■





신앙의 초상

카요 소피와 앙토니 리나트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다. 교회 회원인 카요는 늘 앙토니도 교회에 들어오기를 바랐다.

레슬리 닐슨, 사진 작가

카요와 앙토니

프랑스 파리

앙토니:

저는 카요가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크면서 다들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만, 카요는 제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었죠.

여덟 살부터 열여덟 살까지, 저는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훌륭한 원칙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을 하긴 했지만, 제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야 했으니까요.

카요: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앙토니는 침례를 받았어요.

저는 우리가 진실로, 진심으로, 철저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신다고 믿어요. 후기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어떤 생활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진실로 변화를 이루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앙토니에게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 카요와 앙토니의 이야기는 [lds.org/go/91738](https://www.lds.org/go/91738)에서 더 찾아볼 수 있다.
- [lds.org/go/91739](https://www.lds.org/go/91739)에서 딸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나누는 것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다.

— 스스로 호흡을 하기 시작한 산티는
마치 “엄마, 튼튼해져서 제 몫을 다
할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세상을 떠나는 아들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던 날, 의사는 장차 태어날 우리 아기가 다운 증후군을 안고 태어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남편도 나도 미처 예상치 못한 말에 내가 꿈꾸던 미래는 순식간에 달라져 버렸다.

나는 아이를 배 속에 품은 기간 내내, 대체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의문과 염려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 갔다. 그리고 마침내 낄짜가 되자, 이제 곧 아름답고 특별한 아기가 태어나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아들을 산티아고라고 이름 지었다. 그런데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운 증후군만이 아니라 몇몇 심각한 합병증으로 심장, 간, 폐에도

이상ى 있음이 드러났다. 의료진은 즉시 아들에게 인공호흡기와 인공 심폐기를 달았다. 병원에서 낄짜를 보내는 동안, 남편과 나는 어떻게 다른 아들을 기르면서 산티아고를 기를지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산티”는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게 되었다. 스스로 호흡을 하기 시작한 산티는 마치 “엄마, 튼튼해져서 제 몫을 다 할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이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 손가락을 꼭 움켜쥐었다. 그렇게 아이가 건강해진 듯했으나, 문제는 심장이었다. 아들은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얼마 못 가 하늘 아버지께 돌아갔다.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큰 기대를 안고 아이가 세상에 오기를 기다리며 아이를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계획한 후에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힘겨운 일이 또 있을까.

우리 부부는 산티아고를 묻고서 성전에 갔다. 안으로 들어서자 마음에 위안을 느꼈다. 나는 언젠가 내가 산티아고를 알아보고 그 아이의 엄마로서 즐거워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전이 있고,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제 아들 산티아고와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만 남은 것이다. ■

로시오 알바라도, 칠레 산티아고

구주, 최고의 명의

나는 의사다. 한번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혈액 검사 결과를 들고 내원한 환자가 있었다. 그녀는 검사 결과가 나온 뒤 병원에 찾아오기까지 줄곧 인터넷을 뒤지며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본 터였다. 나를 만났을 때, 그녀는 심란하고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내가 결과를 설명해 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쩔 줄을 몰라했다.

내가 말했다. “환자분은 잘못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결과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고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같이 이겨 내 봅시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다시 건강해질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를 믿으시고 의료적인 걱정의 짐은 제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환자분은 온 힘을 다해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녀는 두려움을 누그러뜨렸다. 추가 검사가 계획되었고, 우리는 같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로 약속했다.

몇 달 후, 나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일은 힘겹고,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었으며, 이사도 앞두고 있던지라 정말 힘이 들었다. 낙담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다.

나는 내 걱정, 죄, 그리고 낙담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했다. 그러자, 영은 내 삶에 구주가 중요하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잘못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건 내가 할 일이지 않니. 그래서 내가 있는 거란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것을 견뎌 거란다. 나를 믿으려무나. 그리고 같이 이겨 보자꾸나. 내 말을 따르면 너는 다시 온전해질 것이야. 나를 믿고 영적인 짐은

내게 맡기렴. 그리고 너는 온 힘을 다해 최고의 모습이 되려무나.”

이렇게 깨닫자, 더는 두려움과 죄책감, 낙담이 들지 않았다. 내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발휘하자, 내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생산적이지 못한 감정들이 사라진 것이다. 나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중에 복음대로 생활하며 구주께 의지할 수 있었다.

의사가 육체의 온전함을 위해 우리를 이끌어 주듯, 최고의 명의이신 구주께서는 수치심과 두려움, 죄책감의 짐은 물론 낙담과 불안의 감정까지도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보여 주신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일이며, 그분은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신다. ■

매트 린지, 미국 하와이 주

“**잘**못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건 내가 할 일이지 않니. 그래서 내가 있는 거란다.”

중독, 그리고 주님의 도움

몇 해 전 우리 부부는 내 술 문제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딸들의 눈물도 나를 바꾸지 못했다. 선교사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고 얼마 되지 않아 아내와 딸들은 침례를 받기로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나는 술에 절어 살고 있었다. 일이 끝나면 술집으로 갔고, 술에 취해 절근하기를 밥 먹듯 했다. 나는 술에 취하면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과 논쟁이나 싸움을 벌이기가 일쑤였다.

딸들은 내가 일을 나설 때면, 내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따라나서겠다고 울면서 매달렸다. 나는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저 계속 술을 마시고 싶었다.

결국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중독을 이기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한동안은 술을 안 마시고 일주일 이상 견디기는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들이 물문경의 한 구절을 나눠 주었고, 그 구절은 내 삶을 바꿔 놓았다. “또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이터서 12:27)

나는 구주의 도움이 간절했다.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 중독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분께 의지하면 할수록 술 없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몇 차례 선교사들을 만난 뒤 침례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 후로 내 삶은 달라졌다. 팔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단 한 방울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모두 주님 덕분이다. ■

빅토르 무뇨즈 발데, 페루 우안카요

다들에게 술은 입에도 대지
르 않았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머니가 잠을 못 이루며 힘겨워하시자, 나는 경전을 읽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전이 가져다준 육신의 편안함

나는 어려서 소아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았다. 나는 자주 아팠고, 부모님은 나를 데리고 수도 없이 병원을 오가셨다. 부모님은 내 건강을 염려하셨고, 내 병을 고칠 수 없어서 무력감을 느끼셨다. 어머니가 유방암과 사투를 벌이시는 동안 그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아야 할 입장이 되어서야 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어느 주말, 나는 어머니가 화학요법을 받으시는 동안 곁을 지켜 드리기 위해 뉴저지 주에 있는 어머니 댁으로 차를 몰았다.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를 돌보는 형제들에게 쉴 시간을 주고 싶었다. 어머니는 치료 중이시라 밤에도 지켜볼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침대는 거실에

있었다. 나는 소파에서 자기로 했다. 고통스러워하시는 어머니를 앞에 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력감과 좌절감이 밀려왔다.

어머니가 잠을 못 이루며 힘겨워하시자, 나는 경전을 읽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경전을 사랑하셨지만 너무 약해지신 나머지 경전을 손에 들거나 읽을 수가 없으셨다. 어떤 부분을 읽어 드릴지 여쭙니, 어머니는 엘머서가 좋다고 하셨다. 머리맡을 쪽 훑어보면서 7장을 읽어 드려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지상에서의 사명을 설명하는 부분을 읽을 무렵 방에는 영이 가득했다.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 ... 시고자 하심이니라.”(엘머서 7:11~12)

나는 어머니가 편안하게 잠드실 때까지 계속 경전을 읽었다. 경전 덕분에 어머니 댁에는 보혜사가 임했고 어머니는 주무실 수 있으셨다. 그리고 나는 경전에 대해,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 더 큰 간증이 생겼다. ■

잉게르 데 몬테시노스, 미국 버지니아 주



휴고 몬토야
장로
철심인 정원회

의심의 위험 이겨 내기

구주께서는 필멸의 성역을 행하시는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태복음 4:2~3; 강조체 추가)

대적은 구주의 신성에 의문을 던지며 구주를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조건부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경전 지식에서 비롯된 힘을 발휘하시어 그 유혹을 물리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태복음 4: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이

대화로부터, 우리가 마음과 머릿속에서 해로운 의심을 하के끔 대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격

제가 자란 멕시코 소노라에는 인디언 로렐이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자랍니다. 키는 30미터에 달하고 밑동은 거대하며 줄기와 잎이 잘 발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텍사스 뿌리 썩음 병이라는 병이 덮치자 이 나무들이 큰 해를 입었습니다. 이 균이 공격하면, 몇 년 동안은 그 결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균이 서서히 뿌리를 썩게 하면, 이 아름다운 나무는 죽기 시작합니다. 이파리가 누렇게 되어 떨어지고 나면 밑동과 가지가 말라붙고, 나무는 벌목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의심은 이 나무에 들어간 균처럼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보이지 않는 균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면 영적인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결국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의심이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면 시간이 가면서 의심이 우리의 뿌리에 영향을 미치고 신앙의 바탕을 썩게 하여 급기야 우리도 베어지고 말 것입니다.

소위 친구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의심을 시작하곤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맥락 없는 정보를 통해서도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포자기하여 상황에 압도된 채 스스로 진 짐을 의심할 때, 의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집니다. 거짓의 아버지는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당신의 종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등 욕으로 난 인간의 불만을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사탄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마음을 약하게 만들겠다는 사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질문을 곱씹기보다는 힘을 구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했던 조셉 스미스처럼 말입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지여,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러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사진 출처: GETTY IMAGES

기뻐하겠나이다.”(고리와 성약 121:6)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리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고린도전서 10:13 참조)

총으로 위협받고 강도당하다

저는 의심을 소망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게 된 개인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고, 제 자녀들은 어렸습니니다. 저희 부부는 토르티야라는 음식을 만드는 요식업체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매일 장시간 일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자정부터 새벽 세 시까지 일을 해야 했던 어느 날 밤, 세 명의 젊은이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셋 다 약물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중 둘은 스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긴 우비를 입고 있었는데, 우비 속에는 무기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를 위협하며 가게 안에 밀어 넣고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바깥을 지키며 서 있던 나머지 한 명이 연거푸 소리쳤습니다. “죽여 버려, 죽여 버리라고!”

한 명이 제 관자놀이에 총구를 갖다 대더니 바닥에 누우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아내의 가슴에 총을 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고아가 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마침내 강도들은 저희를 화장실에 가둔 후 제 트럭을 몰고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화장실을 빠져나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과 제 동생이 왔습니다. 서둘러 아내를 집으로 데려다 준 후, 저는 동생과 함께 트럭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었습니다. 새벽 다섯 시 무렵, 저는 몹시도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와 아이들은 집에 없었습니다. 이웃의 말로는 네 살배기 딸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치료하려면 돈이 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가게로 돌아가 그날의 주문량을 맞추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이라고는 아내와 저뿐이었으므로, 저는 혼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반죽을 해서 기계에 넣고 크기를 조절해가며 동분서주 토르티야를 만들면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여덟 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밤 일어난 일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스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는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니?”

토르티야를 제외한 모든 것

저는 그 악의적인 생각을 제쳐두고 기도로 힘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제 가정 복음 교사이신 저희 와드 감독님과 어떤 형제님이셨습니다.

감독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토르티야를 만들 줄 몰라서 여기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트럭과 자매님, 그리고 아픈 아이와 다른 아이들 걱정은 마십시오. 회장은 여기 계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돕겠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들은 토르티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돌려 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해



우리 가족은 증조할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신앙 덕분에 여섯 대를 거쳐 영적인 뿌리가 강화되었다.

보니, 집은 깨끗하고 정갈했고, 제 셔츠도 다림질돼 있었으며, 음식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다녀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제 트럭을 찾았고, 와드 회원 한 분이 트럭을 가져오도록 돈을 내 주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내와 딸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감독님이 들르셔서 아이에게

축복을 주고 가신 터였습니다. 아이는 맹장염에 걸린 것이었는데, 잘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독님이 저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금식 헌금이나 감독의 창고 물품을 쓰신 것이 아니라는데 무척 놀랐습니다. 대신, 와드 회원들이 배운 자원과 인정을 나눠 주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회복기에 접어들 무렵, 아내와 함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세 분의 여성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들은 그 젊은 강도들의 어머니들로, 사과를 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은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여성들은 말 그대로 아들들을 저희 가게로 데리고 와서 용서를 빌었고, 저희 가족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던 이들

저희 가족사에는 의심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1913년 멕시코에서 봉사하던 어니스트 영 장로와 그의 동반자는 남편을 여인 제 고조할머니 마리아 데 헤수스 데 몬로이와 세 딸 나탈리아, 호비타, 과다루페, 그리고 외아들이자 제 증조할아버지인 라파엘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6월 10일에 침례를 받았습니. 두 달 뒤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자 미합중국의 시민들은 멕시코를 떠났습니다.

1913년 8월 29일이 되었습니다. 레이 엘 프랫 선교부 회장을 비롯한 모든 미국인 선교사가 떠나게 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개종한 지 두 달에 접어든 서른네 살의 라파엘 몬로이는 선교부 회장 사택을 찾아가서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마르코스에는 조직된 지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신권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랫 회장은 라파엘에게 자리에 앉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하고는 그를 장로로 성임한 뒤 산마르코스 지부의 회장으로 성별했습니다.

자신이 성스럽고 영원한 침례 성약을 맺었음을 이해했던 라파엘은 복음을 나눠야 한다는 것 또한 이해했습니다. 라파엘과 그의 보좌인 비센테 모랄레스는 23개월 동안 5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개종과 침례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십 명의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915년 7월 17일 되자, 산마르코스에도 혁명군이 당도했습니다. 혁명군은 라파엘과 비센테가 반대군에 속하여 그들을 지원하고 무기를 숨겼으며, 이상한 종교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군대는 둘을 수감하고 고문했으며, 기절할 지경에 이르도록 매달았습니다. 그런 뒤 목숨을 건질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종교를 포기한다고 말한다면 살려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라파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오. 내가 받은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오.”

라파엘과 비센테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간증에 어긋남 없이 행했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은 남부 해방군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믿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었습니다.¹

지금도 참된 것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으로 시험받을 때면, 영적인 경험들을 되새깁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의심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임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의심이 밀려들기 시작한 분이나, 오랫동안 견뎠으나 점점 지쳐 가는 오래된 회원들, 그리고 처음에는 큰 기쁨을 느꼈으나 신앙을 키우지 못하고 약해져 가는 최근 개종자 분들에게 특히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에 속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 추천서를 보냈을 때 복음이 참됐다면(물론 참됐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복음이 참됐다면(물론 참됐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개종하고 침례받았을 때, 혹은 여러분이 남을 개종시키거나 침례 주었을 때 복음이 참됐다면(물론 참됐습니다!), 여러분이 인봉받았을 때 복음이 참됐다면(물론 참됐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지금도 똑같이 참됩니다.

예수께서는 경전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범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기도로 간구하면 안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심 없이 목숨을 버렸던 이들은 죽음과 맞서서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과 유혹은 잠시뿐입니다.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교리와 성약 6:36) ■

주

1. Rey L. Pratt, Conference Report, Apr. 1920, 90~93 참조.

음악에 대한 실험

마르셀 홀

나는 항상 복음의 표준을 전부 지키지 않아도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다. 운 좋게도 말이다. 그래서 어떤 표준이 중요하고 어떤 표준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내 마음대로 정해 놓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표준 중 하나는 불경하고 저속한 음악은 듣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2011), 22쪽 참조) 내가 듣는 음악 때문에 복음에 대한 나의 행동과 느낌이 바뀌게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간증이 있었고,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 그 음악가들이 정결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들의 음악을 듣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내 삶의 중심이 복음이라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내가 듣는 음악이 영적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선교사 부름장을 열어 본 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엘마서 32장 27절이 떠올랐다. “그러나 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참으로 내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참으로 설혹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를, 곧 너희가 믿어 내 말의 일부를 위한 자리를 내줄 수 있기까지 그리하라.”

그중에 시험이란 한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놓치고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해 봐야 했다. 그 후로 삼 주 동안 나는 부적절한 음악을 듣지 않았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중간 포기하기도 했지만, 며칠이

**간증을 강화하고
영적으로 발전하고
싶다면 내 행동에 대한
변명을 멈추어야 했다.**

지나자 매일 평화로운 느낌이 찾아오기 시작했으며 힘든 것도 사라졌다. 무엇보다도 대학생인 나는 학과 수업 시간에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집중할 수 있었고, 하늘의 인도가 특별히 필요했던 순간에 영과 더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내 소망도 달라졌다. 나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기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킬 때에만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별로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합니다.(엘마서 12:10~11 참조) ...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함께한다는 것을 자신의 개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자신을 영원히 헌납하는 것을 주저합니다.(모사야서 15:7 참조) 물론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 시간, 명성, 재산 등 이기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누가복음 9:24 참조) 그분은 새로운 자아를 찾기 위해 낡은 자아를 버리라고 가르치실 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희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 “아버지의 뜻과 함께하리로다”,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23쪽.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고 싶어졌다. 음악에 관한 습관을 바꾸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골라 선택하는 표준이란 없으며 우리가 받은 모든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 주고 우리가 더욱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계명이라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복음 표준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별된다. 우리가 선한 것에서 더 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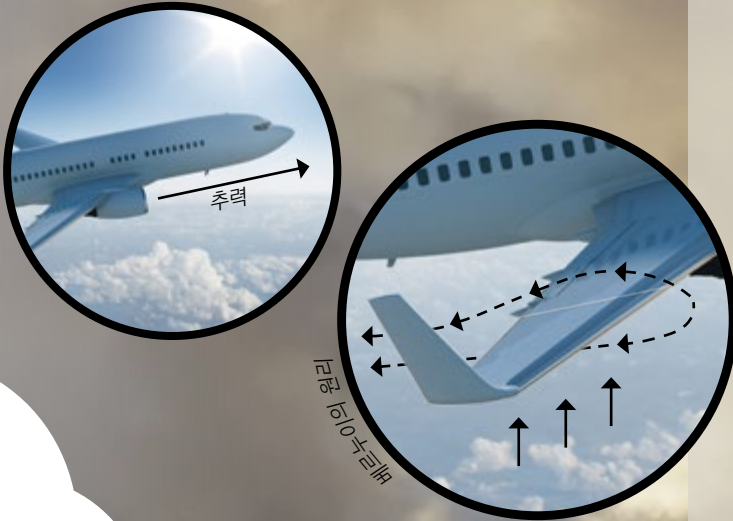
것으로 올라가는 단계를 밟아 나갈 때, 진정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 복음에 중립 지대란 없다. 전진하거나 퇴보하는 길만 있을 뿐이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는 생각은 틀림없이 퇴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권능에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평안 속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에 맞게 자신이 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비행의 역학

우리는 비행기를 통해 순종과 계시, 그리고 영적인 인도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 두 가지 힘

나는 비행기 정비공으로 일하면서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두 가지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추력**, 즉 앞으로 나아가는 힘. 양력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속도여야 한다. 추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항력을 극복한다.
2. **양력**, 즉 비행기 날개의 위를 지나가는 공기의 압력과 아래를 지나가는 공기의 압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힘.(베르누이의 원리로 알려짐) 양력은 비행기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을 극복한다.

이것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우리는 몇 가지를 간단히 비교해 봄으로써 비행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 사이에서 인상적인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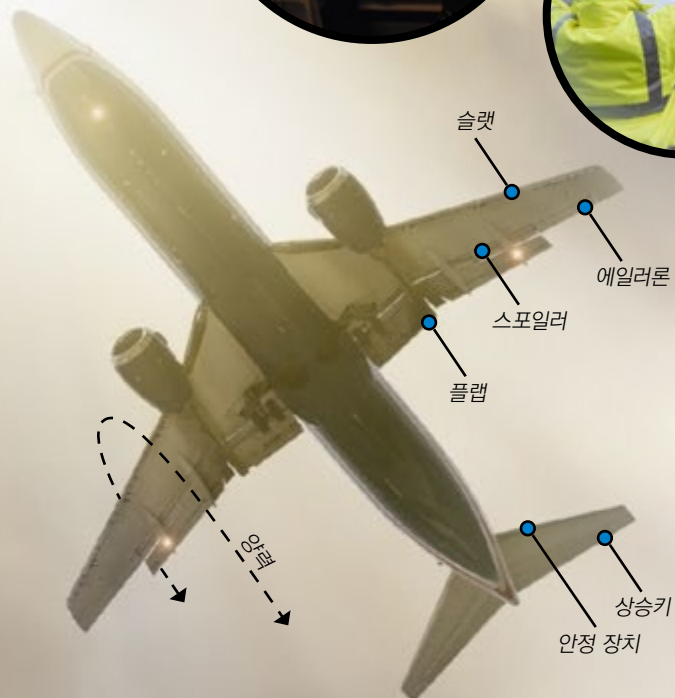
➔ 영적인 양력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면 힘이 생긴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추력과 양력을 얻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방법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다.

🌀 항로 변경

침례를 받고 나면 최고의 영적 항법 장비인 성신을 받는다. 우리가 계속 순종하면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끊임없이 속삭여 준다. 그 음성을 주의 깊게 들으면 인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경로를 수정해 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방도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러려면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가? 경전을 연구하는가? 모임에 참석하는가? 성전에 갈 준비를 하는가? 성전에 참석하는가? 또한, 영적인 자세와 고도, 그리고 방향을 크고 작게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항로 변경

물론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이밖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두 개의 부가 시스템으로 연결된다.

1. **항법 보조 기기**들은 조종사의 항로 유지를 돕는다. 조종실의 계기판과 눈금판은 물론 레이더 비컨[항공기의 레이더에서 신호를 받아 그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장치, 옴긴이] 및 관제탑과의 음성 연락도 여기 해당한다.
2. **항공 조종 장치**들은 방향 변경을 돕는다. 러더(비행기 꼬리에 장착된 상하로 움직이는 날개), 에일러론(보조 날개), 트림 탭(날개에 부착된 작은 날개), 큰 플랩(양 날개에 달려 양력 발생을 조절하는 장치), 스포일러(하강이나 선회시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날개에 다는 가동판), 슬랫(비행기 날개에 설치된 가동식 또는 고정식의 작은 날개), 안정 장치 등이 여기 해당한다. 이 장치들은 비행기의 회전, 상승, 하강, 선회 및 부드러운 착륙을 돕는다.



든든한 지상 요원

항공기 조종사는 지상 요원들을 믿고 의지한다. 지상 요원들은 항공기의 비행을 준비하고, 이착륙 시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인도하며, 비행 전후 검사를 수행하고, 비행기의 유지 및 보수를 시행하거나 권장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들은 비행기의 유지와 안전을 책임진다.



영적 인증

항공기 조종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지상 요원에게 의지해야 한다. 부모님, 청남 청녀 지도자, 감독, 감독단 보좌, 가정 복음 교사, 세미나리 교사와 의로운 친구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지상 요원들이다. 이들과의 접견을 비행 전후에 이루어지는 검사로 여기자. 비행기가 정기적인 검사를 거치는 것처럼 우리도 정기적으로 계획된 접견을 통해 비행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검증할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영적인 지상 요원들은 우리의 능력을 평가하여 계획된 비행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며, 영적인 풍속과 잠재적인 난기류에 관해 조언할 것이다. 성전에 가는 것과 같은 특정 활동을 하려면 이륙할 준비를 마쳤음을 보이는 확인서가 필요하다. 연차 대회 말씀은 모든 비행기를 한눈에 보고 광범위한 항법 지침을 제공하는 항공관제사의 말을 듣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어지는 권고에 순종하면 잠재적 위험을 피하여 운항할 수 있을 것이다.



비행 준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비행을 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가 영적인 고지에 도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늘에 닿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분의 도움이 있으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youth.lds.org에 방문한다.

여러분의 간증, 그리고 몰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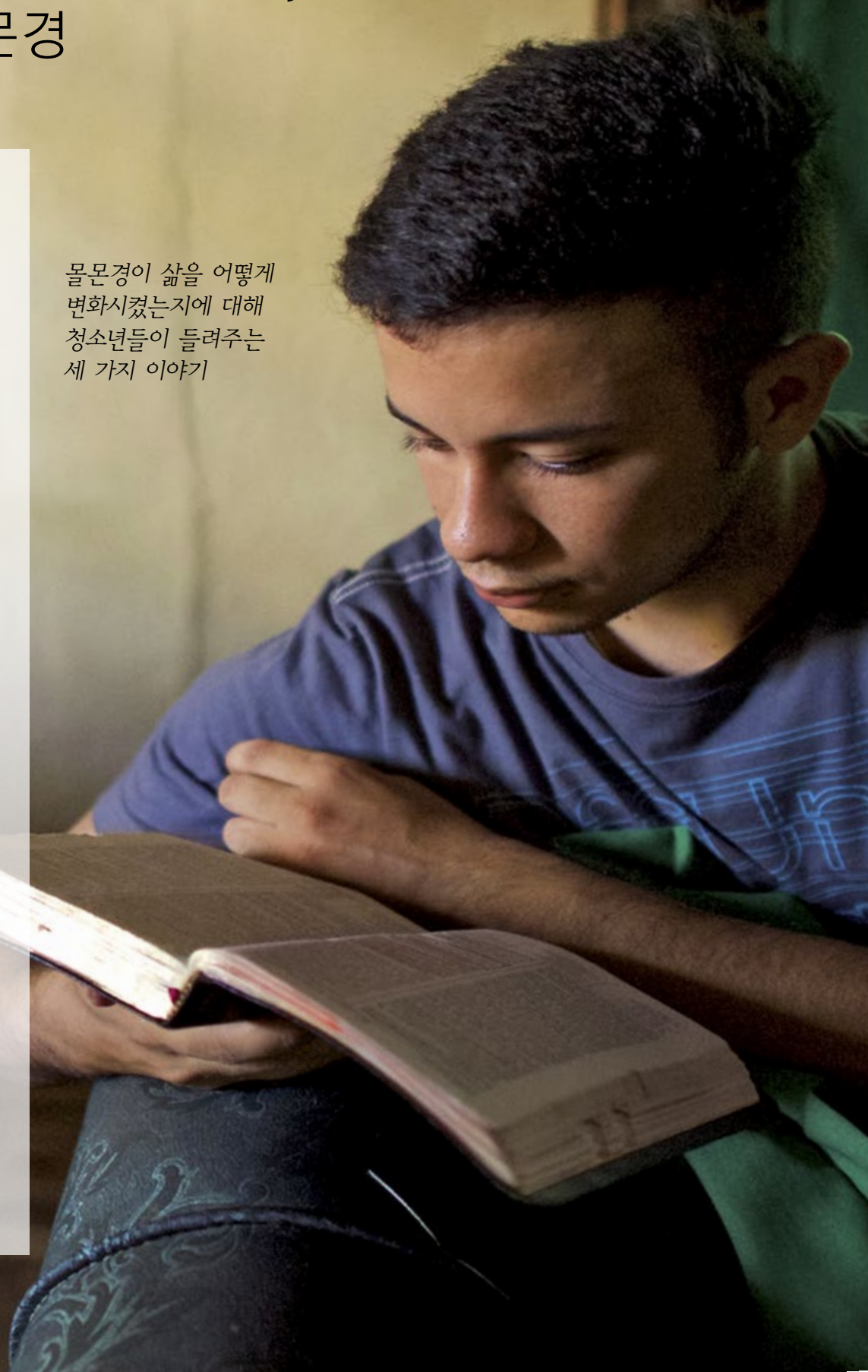
조

셸 스미스는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중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몰몬경
소개)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다. 이 사실이
참됨을 알 때 모든 것이
변한다.

다음 간증을 쓴
사람들은 몰몬경을 읽고
기도한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개종했다. 진실한
마음으로 몰몬경을 읽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도
변화할 수 있다.

몰몬경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청소년들이 들려주는
세 가지 이야기



읽고 기도해 보라

마이클 팩, 미국 아이다호 주



내가 열일곱 살 때, 친구 한 명이 내게 자기가 몰몬이라고 말했다. 그 당시 나는 몰몬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부모님은 나를 교회에 다니게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나는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친구에게 말했다. “알고 싶은 게 생기면 그냥 내가 혼자서 알아볼게.”

내가 교회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 친구는 내게 몰몬경을 한 권 주었다. 그리고 몰몬경을 읽고 기도해 보라고 했다. 그 친구는 내가 교회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해서 부담을 주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친구가 바랐던 것은

그저 내가 그 책을 읽어 보고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몰몬경을 펼치자, 첫 장에 친구의 간증이 써 있었다. 친구의 간증을 읽으면서, 이 책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니파이전서부터 읽기 시작했다. 나는 책을 덮을 수가 없었다. 더 알고 싶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친구의 가족과 가정의 밤을 함께했고, 그들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나는 복음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다 맞는 말 같았다. 더 배우면서,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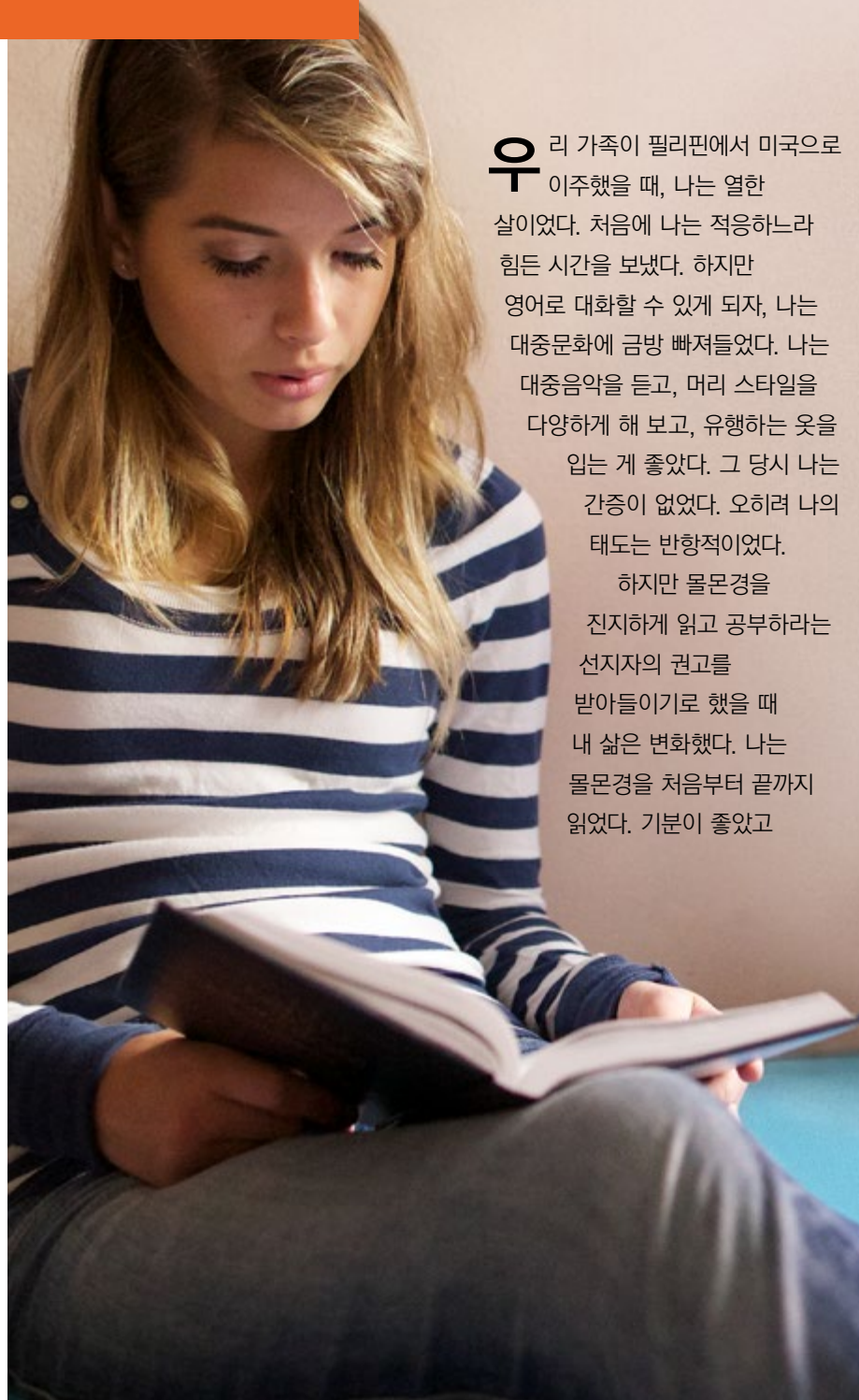
태도도 변했다.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다. 곧 나는 선교사와 토론을 했으며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았다.

몰몬경이 나의 삶을 바꾸었다. 뒤돌아보면, 내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성신이 인도하셨음을 느낀다.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내가 충실하다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도록 도와주었다. 내게 복음을 나눠 준 그 친구가 참 고맙다. 그녀는 진정한 친구란 망설이지 않고 복음 진리를 나누는 친구라는 것을 내게 보여 주었다.



선지자의 권고 받아들이기

포샤 마조리 제이 알바로,
미국 텍사스 주



우 리 가족이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나는 열한 살이었다. 처음에 나는 적응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영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자, 나는 대중문화에 금방 빠져들었다. 나는 대중음악을 듣고, 머리 스타일을 다양하게 해 보고,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게 좋았다. 그 당시 나는 간증이 없었다. 오히려 나의 태도는 반항적이었다.

하지만 몰몬경을 진지하게 읽고 공부하라는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내 삶은 변화했다. 나는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기분이 좋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몰몬경이 참되다는 확신은 들지 않았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모로나이서 10:4~5에 나오는 모로나이의 약속을 시험해 보았다. 천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이게 다야?”

실망스러웠지만, 나는 계속해서 몰몬경을 공부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몰몬경에 관한 꿈을 꾸었다. 잠에서 깨었을 때,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평화와 확신의 느낌이 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바로 이거야. 이게 바로 응답이야.”

이 경험을 한 후로, 나는 더 자신감이 생겼다. 학교 성적도 올랐고, 학교 활동에도 더 많이 참석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교회에서도 매우 활동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몰몬경을 계속해서 공부했고 그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했다. 몰몬경을 읽으면서 한 경험은 내 인생의 빛이 되었다.

내 삶에 구원을 가져다준 책

익명



우리 가족과 나는 내가 열두 살이었을 때 교회에 들어왔다. 그 당시 나는 그 은사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교회가 참된지도 몰랐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선교사가 전한 메시지에 감명을 받았다. 나도 선교사들이 좋았지만 그들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마침내 그들은 우리에게 침례를 권유했고, 우리 가족은 가족이 다 함께 교회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가족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함께 침례를 받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개종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나는 교회와 세미나리에 참석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후에 교회를 떠났다. 교회에 친한 친구들이 있었기에 나는 계속 세미나리와 상호 향상 모임에 나가서 그 친구들과 어울렸다. 나는 복음이나 교회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교회가 지루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나는 절도나 기술파손 등의 일에 연루되기 시작했고, 내 삶은 점점 꼬여만 갔다. 아버지는 폭력과 학대를 일삼게 되었고, 나는 자살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자살은 결코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다. 마음 깊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 가슴에 그런 식으로 못을 박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주변을 둘러보다 교회 친구들을 보았다. 그들에게는 있지만 나에게는 없는 한 가지는 바로 간증이였다. 그래서 나는 몰몬경을 처음으로 읽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열여섯 살이었고, 침례받은 지 4년이

지난 때였다.

쉽게 읽히는 내용이 아니었기에, 끝까지 읽는 데는 거의 2년이 걸렸다. 제3니파이에서 부활하신 후 니파이인을 방문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고 있을 때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둘러싼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마치 내가 니파이인 가운데 서서 내 두 눈으로

그 기적을 목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형용할 수 없이 위대한 사건이 실제 일어났던 일임을 성신이 내게 증거해 주셨다.

눈물로 눈앞이 흐려져서 더 읽을 수가 없었다. 평정을 찾은 후, 나는 계속해서 읽어 나갔다. 몇 주가 흐른 뒤 나는 몰몬경을 다 읽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몰몬경이 참된지 알기 위해 기도했다. 하지만 응답은 오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정기적으로 무릎을 꿇고 몰몬경이 참된지, 교회가 참된지 알게 해 달라고 간구했지만, 여전히 응답을 받지는 못했다. 절망스러웠지만, 몰몬경 읽기를 마친 지 몇 주가 지난 후 나는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간구했다. “하나님 아버지, 몰몬경은 참된가요?” 내가 기대했던 응답은 아니었지만,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 “나는 이미 네게 이야기해 주었던단다. 너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몇 주 전에, 그리스도가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부분을 읽으면서 간증을 얻었던 것이다. 나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선지자에 의해 회복되어 고대에 그렸던 것처럼 선지자에 의해 인도되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임을 알고 있었다.

몰몬경이 나의 삶을 구원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아니, 회복된 복음이 나를 구원했으며 나를 매일 새롭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몰몬경은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 ■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간증과 증거를 얻기 원한다면, 심지어 여러분에게 몰몬경에 관한 간증이 이미 있다 하더라도, 몰몬경을 읽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개종은 더욱 깊게 이루어질 것이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준다. 몰몬경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임을 알도록 도와줄 것이다. 마음을 열고 몰몬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지고 변화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25

몰몬경에

나오는

스물다섯 가지 진리

몰몬경에 나오는 진리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한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세미나리와, 가정, 교회에서 몰몬경을 공부하며 배울 수 있는 진리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그 진리들에 대해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나누고 그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 이러한 중요한 진리에 대한 이해와 간증 및 개종을 심화시킨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며,
조셉 스미스는 그분이
선택한 선지자이다.

몰몬경 소개



.....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언제나 방편을 마련하십니다.

..... 니파이전서 3:7



몰몬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강화한다.

니파이전서 13:26~29, 39~42

우리는 신앙,
부지런함,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는다.

니파이전서 16:27~29

몰몬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되었다.

니파이후서 27:6~23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니파이후서 25:19~20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알려 줄 것이다.

니파이후서 32:3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를 따를 때
학식을 얻는
것은 유익하다.

니파이후서 9:28~29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녀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니파이후서 26:33

영은 진리를
말해 준다.
야곱서 4:13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
모사이야서 2:17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다.
..... 모사이야서 3:19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다.
모사이야서 4:9

우리는 침례를
통해 주님과
성약을 맺는다.
모사이야서 18:8~10



주님은 시련을
견디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모사이야서 23:20~24; 24:13~15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고통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셨다.
앨마서 7:11~13

신앙은 완전한
지식이 아니다.
앨마서 32:21



젊었을 때에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
앨마서 37:35

그리스도는
확실한
기초이다.
힐라맨서 5:12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제3니파이 1:1~26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그분의
뜻에 따라 기적을 행하십니다.
몰몬서 9:20~21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참된
것들을 바라는
것이다.
이터서 12: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제3니파이 18:15, 20~21

자애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다.
모로나이서 7:45, 47~48



우리는 물문경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물문경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다.
모로나이서 10:3~5 ■

경전:

매일 10분 만이라도

해들리 그릭스
교회 잡지

여러분은 이런 경전 읽기 목표를 세워 본 적이 있는가? “오늘부터 나는 앞으로 경전을 매일 한 시간씩 공부할 거야. 그것도 철저하게 말이야.”

그런 목표를 세운 적이 있다면, 어떻게 되었는가? 별로 잘 되지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은 정말 어렵다. 특히 (위와 같은)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경우 보통 금세 지지거나 질리기 때문이다.

정말 경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개리 이 스티븐슨 장로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제안을 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루 평균 일곱 시간을 TV, 컴퓨터,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데 [쓰고 있습니다.] … 매일 소셜 미디어, 인터넷, 게임,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 데 쏟는 시간의 일부를 몰몬경을 읽는 시간으로 바꾸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 매일 10분 만이라도 말입니다.”

다섯 명의 청소년에게 스티븐슨 장로의 권고대로 해 보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매일 화면을 보는 데 사용하는 시간을 기록한 다음, 그중에서 10분을 몰몬경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꾸었다.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을 확인해 보자. 아마 여러분도 한번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지 모른다!

다섯 명의 청소년에게 스티븐슨 장로의 권고대로 매일 화면을 보는 데 사용하는 시간 중에서 10분을 몰몬경을 읽는 시간으로 바꾸어 보라고 부탁했다.



“첫 주에 제가 소셜 미디어에 사용하는 시간을 기록해 보고 나서,

제가 스마트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 시간 중의 일부를 물론경 읽기에 쓴다는 건 확실히 좋은 생각이었어요. 특히 저는 부지런히 경전을 읽는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알못게도, 아침에 물론경을 읽던 첫 며칠 중의 하루는 끔찍한 하루였어요. 그렇지만 경전을 읽으면 제 생활이 정말 나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읽었어요.

제 생각에 경전을 매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가장 큰 특징은 영과 조화를 더 잘 이루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결정도 훨씬 더 쉽게 내릴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에게 봉사하고 싶은 소망이 더 커지는 걸 느꼈어요. 아침에 경전을 읽으면, 하루가 훨씬 더 잘 풀렸어요. 밤에 읽으면, 잠을 잘 잤고요. 모두에게 이렇게 해 보라고 강력히 추천하고 싶어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브린 시, 18세, 미국 유타 주



“제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기록해 보고서야,

제가 일요일에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은 구주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날인데,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경전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10분씩 읽었어요. 대략 하룻밤에 한 장쯤 읽는 셈이었죠. 이렇게 하니 훨씬 잠이 잘 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한 일주일 내내 더 옳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과 자부심도 느끼게 되었고요.

이런 권유를 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자기 전에 10분씩 경전을 읽고 기도할 계획이에요.”

라이언 이, 16세, 미국 앨라배마 주



“제가 사용하는 시간을 기록하기 전에는,

시간을 따로 내서 경전을 읽는 일은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셜 미디어에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 그중에서 10분을 내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죠! 점심때 읽거나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읽으면 됐으니까요.

경전을 읽은 후로는, 소셜 미디어에서 제가 보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훨씬 잘 인식하게 되었어요. 우연히라도 욕설이나 부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나쁜 걸 보게 되면, 전보다 많이 그런 것을 알아차리고 이를 피하려고 애쓰게 되었어요. 또 제 기도가 훨씬 더 진지해졌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지 제이, 16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제가 소셜 미디어에 사용하는 시간을 기록해 보라는

부탁을 받기 전까지는 제가 소셜 미디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제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소셜 미디어를 보는 데 소모되고 있는지도 그때 알았고요.

매일 경전을 읽는 일에 실제로 집중하기 시작하자마자, 몰몬경을 읽고 싶다는 강한 열의가 느껴졌어요. 그 책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었죠. 매일 10분씩 읽으면서, 저는 몰몬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점점 더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절반 정도 읽었을 때, 저는 제가 가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한 뒤에 경전을 읽기로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예외 없이 제가 구하는 답을 성신을 통해서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경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과 몰몬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것을 알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렬히 공부할 때 우리 삶은 진정으로 축복받을 수 있어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에 정말 감사드리며,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해 보시도록 권합니다.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어요.”

라이언 이, 16세, 미국 앨라배마 주



“몇 번 잊어버리기는 했지만,

물문경 읽기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어요. 스티븐슨 장로님의 권유대로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매일 밤 겨우 3분 정도밖에 읽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읽기를 매일 밤 10분으로 늘렸더니,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경전을 읽으면서 저는 영과 더 조화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느껴요. 매일 영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요. 한동안 경전을 읽지 않다가 다시 경전 읽기를 시작하려면 어려운 것처럼, 일단 읽는 습관을 들이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경우에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경전을 읽으면, 보통 그냥 잠이 들거나 읽어도 별로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경우에는 아침에 읽거나 방과 후에 읽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었어요.

이렇게 물문경을 읽으니 너무 좋았어요. 모두들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레이첼 에이, 15세, 미국 콜로라도 주



여러분도 이렇게 해 보고 싶은가?
이 기사를 LDS 청소년

웹사이트에서 찾아 어떻게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지 여덟 가지 도움말을 확인해 본다. lds.org/go/91761

주
1. 게리 이 스티븐슨, “그 책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라”,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46~47쪽.

할 일이 너무 많은가?

“우리는 중요한 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찾습니까? 우리는 관점을 단순하게 만들고 순화시킵니다. 어떤 것은 악하며 피해야만 합니다.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중요한 것이며, 어떤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2007년 4월 연차 대회.

해답을 찾아서

도움을 받아 저는 반복적으로
짓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짓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혹을 물리치고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닌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 여러분을
들어 올리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시는
그분의 권능을 믿는 신앙,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신앙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분들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충실하십시오.
(모사이아서 4:11~12 참조) 그러면 여러분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의로운 삶을 살고자
의식적으로 애쓰는 데서 오는 은사입니다.”¹

완전히 회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보통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유혹을
부르는 상황을 피하십시오. 일상생활과 주변 환경
및 친구들을 바꾸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혹 다시
실수하더라도, 여전히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계속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죄는 얼마나 어렵든, 오래되었든, 또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는가에 상관없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낼 수 있습니다.”² ■

주

1. 러셀 엠 넬슨, “기쁨과 영적 생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4쪽.
2. 보이드 케이 패커, “행복의 계획”,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28쪽.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교회에 관해
의문을 가지며 멀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가 옳은지 그른지 묻기 시작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속 굳건해야 한다. 그들과 교회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이 옳다고 증명하기보다는 그들이 느끼는
바에 집중한다. 의문이나 의심을 가졌다는 점 때문에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설혹 여러분이 충격을 받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더라도 그런 내색은 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차분하게 그들이 품고
있는 의문점에 관해 이야기한다. 또한 그들이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과 간증을 꼭 붙잡도록 돕기 위해
노력한다.(도움을 필요하다면, lds.org/go/91763을 참조한다.)

누군가가 교회와 더 얽히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까지
끊을 필요는 없다. 그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들과 교회 및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더 나누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공유하는 것을 붙잡는다. 꼭 교회와 연관 짓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들을 염려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목표도 포기하지 않도록 한다. 여러분으로 인해 그들이 더 발전하도록
이끌되, 그들로 인해 여러분이 퇴보하지 않도록 한다. ■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어떻게 성신을 초대하는가

제가 성신의 영향력을 느끼고 있음을 아는 한 가지 방법은 빛을 느끼며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성신이 제게서 멀어지면, 저는 어둠을 느끼게 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면서 빛과 행복이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것을 느꼈으며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그 빛의 느낌을 좋아하며 행복한 상태가 좋습니다. 성신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자고 곤경과 시험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성신을 동반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마다 온 마음으로 그 축복을 다시 바라게 됩니다.

성신과 성신이 함께할 때 오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바라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성신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신을 동반하려면 **신앙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신앙이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은 우리가 성신을 지니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고 싶어 하신다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우리의 죄에 대해 속죄하시고 사망의 줄을 끊으셨다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경건하게 당신께서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지니고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칩니다**. 깊이 회개하고, 그분의 종에게서 침례를 받으며, 그분의 대언에 충실히 봉사함으로써 정결하게 되고 깨끗해져서 우리가 구하는 축복, 즉 성신의 동반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

2005년 1월 25일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 영적 모임 말씀에서 발췌함.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보았습니까?

저는 기도의 권능을 통해, 그리고 제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고 복음 표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성신을 받습니다. 영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 구주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따르므로써 저는 그것을 실천하고 더욱 예수님처럼 되려는 더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케이트 에스, 17세,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

우리들 공간

세미나리의 축복

세미나리 2학년이었을 때, 우리 반에는 학생이 고작 세 명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즐겁게 복음을 나누어 주시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다. 한번은 수업 시간에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의 죽음 이후 교회가 분열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의 다른 초기 회원들은 이 교회가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했다. 우리 선생님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므로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가르쳤다.

그 공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날 오후,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했다. 우리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했다. 나는 계속 세미나리에 참석했다.

다음 2년 동안, 나는 주님께 봉사할 준비를 하면서 간증과 봉사하려는 소망을 키웠을 뿐 아니라 세미나리에 참석하면서 정말 내 삶이 축복을 받았음을 알았다.

나는 세미나리에 참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확신하게 되었다. 그 덕분에 나는 복음을 내 삶에 적용했고, 그 무엇보다도

나는 복음이란 우리가 일요일에만 따르는 생활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세미나리를 하면서 나는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소망을 확실히 하게 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세미나리의 축복은 현재까지도 내 삶에 남아 있다. 아무도 그것이 쉬우리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세미나리에 참석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며, 우리 마음의 소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실 것이다. ■

베고냐 시, 에라도르 구아야퀼











난민 돕기

태국의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교회 회원들이 기부한 물품으로 방콕에 있는 난민들을 위해 100개가 넘는 위생용품 꾸러미를 만들었다. 그 위생용품 꾸러미는 안정을 찾아 태국으로 들어온 전 세계의 난민들을 돕는 몇몇 지역 단체들에게 전달되었다. 이런 특별 연합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는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이 1966년 11월 2일 복음 전파를 위해 태국을 헌납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전국적인 축하 행사의 일부였다.

연차 대회 단어 세기

연차 대회 동안 여러분이 듣게 되는 단어를 세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모 안에 써 있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 위에 동전이나 콩을 올려 놓으세요. 한 단어가 다섯 번이 나오면, 올려 놓은 동전을 다른 동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색 콩으로 바꿔 주세요. 단어가 써 있지 않은 빈칸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단어를 써 넣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_____	선지자	_____
			
_____	속죄	_____	하나님 아버지
			
사랑	_____	가족	_____
			
_____	성구	_____	어린이

그리스도 그림



테슬라 에스, 11세, 미국 유타 주

매주 일요일 밤이면 아빠와 저는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책자에서 제가 정해 놓은 목표들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요. 제가 재능을 키우기 위해 세운 목표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그 목표를 세운 뒤에, 저는 친구에게서 그 친구의 첫 번째 영성체 의식에 초대받게 되었어요. 첫 번째 영성체 의식은

천주교에서 아주 중요한 의식이예요. 처음으로 성찬을 취하는 날이니까요. 제 친구는 그 의식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고, 저도 그날이 친구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줄 선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기로 했어요. 정말 열심히 그렸죠. 그림을 완성한 뒤, 저는 멋진 액자를 사서 그림을 넣은 다음 친구에게 주었어요. 제 친구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선물을 주면서 제 마음도 기뻐졌어요. 친구의 특별한 날에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





제인의 선택

제시카 라슨
실화에 근거함

1842년, 코네티컷

“**주**님은 내 목자니...” 제인 엘리자베스 매닝의 주위로 음악이 울려 퍼졌지만, 제인은 가사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어요. 제인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장로교에 가입한 지 일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빠진 게 있어.’ 제인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대체 그게 뭘까요? 교회 모임이 끝나고, 제인은 회중과 함께 천천히 밖으로 나왔어요.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처 노어워크 강물 위로 햇빛이 쏟아져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말했어요. “선교 여행 중인 선교사 하나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어요. 물론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선지자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을 하더군요.”

제인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게 그녀가 찾던 것일까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받아줬어요.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 말이요? 누가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들으러 가겠소?”

“저요!” 제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제인을 쳐다보았어요. 옆에 계시던 목사님도요. 제인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목사님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교사의 말을 들으러 가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참으로 어리석은 애기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제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목사님이 가시자 제인은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인이 사는 집은 엄마와 동생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었죠. 그곳은 핏치 씨의 농장이었어요. 제인은 여섯 살 때부터 일을 하며 그곳에 살았어요. 제인은 매일같이 고된 일들을 했어요. 핏치 부인을 도와 설거지와 다림질과 요리를 했고, 아침에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불을 지피고,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버터를 으갠어요. 물론 시간이 날 때면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곤 했지요.

며칠 후, 핏치 씨의 빨래를 널고 있던 제인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맴돌고 있었어요. 바람을 맞은 빨래가 필러였어요.

목사님은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쩐지 제인은 선교사에게 가 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물론 선교사가 자신이 찾던 무언가를, 즉 진리를 찾게 해 줄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빨래를 다 널었을 때쯤, 제인은 마음을 굳혔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선교사의 모임에 가기로 결심했죠.

일요일이 왔고, 제인은 새벽녘에 일어나서 가장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그 모임 장소를 찾아갔어요. 제인은 모임 장소 안으로 들어가서 뒤쪽 나무 벤치에 조용히 앉았어요. 모인 사람이 제법 많은 것을 보고는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뭔가 빠진 것이 있다고 믿고 진리를 찾던 사람은 제인만이 아니었나 봐요!

완탈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그는 물문경과 조셉이라는 선지자에 대해 말했어요. 한 시간이 금방 흘러갔죠. 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침수로써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멀리 나부라는 도시로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모임이 끝났을 때, 제인은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벽차올랐어요.

그날 밤, 제인은 가족들을 보러 집에 들렀어요.

제인이 그날 보고 들은 것을 설명하자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그래서 너는 그 선교사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그분이 참된 복음을 말씀하셨다고 믿어요.” 제인이 대답했어요. “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거예요. 다음 주 일요일에 침례도 받을 거고요.”

“침례? 그럼 누나는 다른 교회에 가입하는 거야?” 동생 아이작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응! 이게 내가 그동안 찾던 거야. 참된 복음!”

아이작은 누나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침례받은 뒤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제인이 답했어요. “성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갈 거야. 나부로.”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

글쓴이는 미국 텍사스 주에 산다.

우리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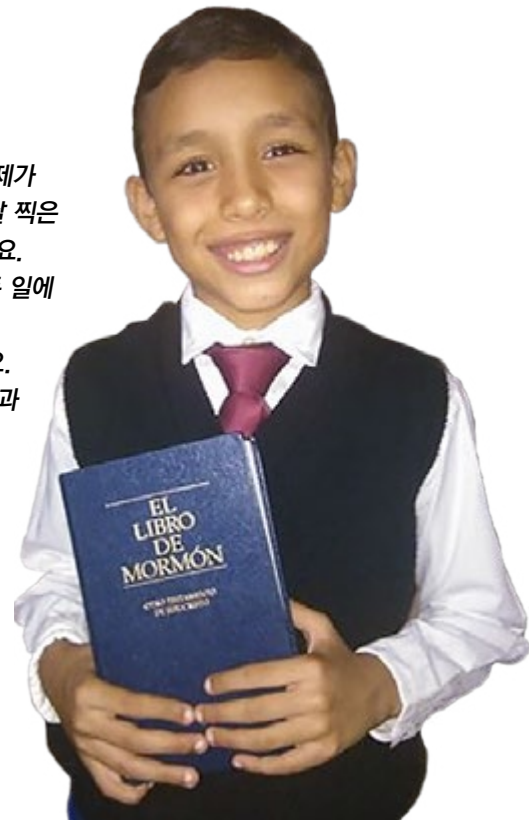


제이지엘 비, 10세, 아르헨티나

저는 오늘 행복해요. 이 사진은 제가 처음으로 몰몬경 한 권을 다 읽은 날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니파이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했다는 것, 그리고 엘마 이세가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도요. 그는 나중에 회개했고, 천사의 방문과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몰몬경을 매일 읽도록 도와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책자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시는 초등학교 지도자분들께도 감사해요.

세바스찬 시, 10세, 베네수엘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신을 사랑해요. 저는 제가 부활하게 된다는 걸 알아요. 제 마음이 따뜻해질 때, 그게 성신이라는 걸 느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어요. 저도 그분들처럼 되고 싶어요.

가브리엘라 에프, 8세, 브라질



“가족은 영원해”, 루비, 8세. “해의 영광”, 레베카, 8세, 엘살바도르.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나부 성전

이 인물 그림들을 잘라서 교회사 이야기를 전해 보세요!



제인 매닝



나부 성전

초기 성도들은 나부라 불리는 곳에 정착했어요. 그들은 높이 많은 땅을 개간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곳에 집을 지었어요. 또, 나부 성전도 지었답니다! 남성들은 돌을 자르고 운반했어요. 여성들은 음식을 만들고, 일꾼들의 옷을 기워 주고,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푼돈을 모았어요.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고, 에머 스미스가 초대 회장이 되었어요.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이 나부로 모이고 있었어요. 제인 매닝은 성도들과 함께 모이기 위해 뉴욕에서부터 1,290km를 걸어왔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할 때 2017년 3월호에 나온 에머 스미스 그림도 활용할 수 있어요! liahona.lds.org에서 더 많은 교회사의 인물들을 찾아보세요.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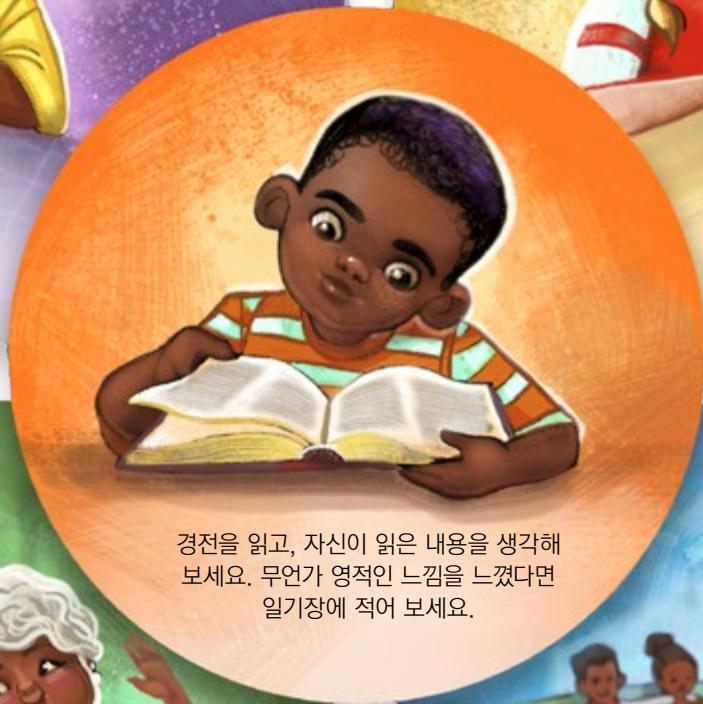
간증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영을 느꼈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간증을 키워 주지
않거나 약하게 하는 것들은
피하세요.



경전을 읽고, 자신이 읽은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영적인 느낌을 느꼈다면
일기장에 적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처럼
봉사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간증을
전하세요.



진 비 병엄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불장난은 하지 마세요!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안전과 평화 있네.”(어린이 찬송가, 68쪽)

어린 시절에 제가 맡아 했던 집안일 중 하나는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었어요. 저는 집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서 뒷마당에 있는 큰 드럼통에 집어 넣고는 성냥에 불을 붙여서 드럼통 안으로 던지곤 했어요.

하루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성냥에 불을 붙여도 자꾸 꺼졌어요. 그래서 성냥 대신 신문지를 말아서 거기에 불을 붙이기로 했어요. 햇불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 금방 꺼지지 않아서 쓰레기에 불이 붙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불장난을 하는 느낌이라서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그런 경고의 느낌을 무시했어요. 저는 신문지를 길게 말아서 꼬깔 모양을 만들었고, 거기에 불을 붙인 후 드럼통 안으로 던졌어요.

어머나! 신문에 붙었던 불이 쓰레기에 옮겨 붙으면서 센 바람과 만나 어마어마하게 큰 화염이 되었어요. 화염은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다행히 저는 머리카락을 대부분 머리 뒤로 묶고 있었지만, 앞머리는 끝이 타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바삭바삭해져 버렸어요! 눈썹도 몽땅 다 타 버렸고, 속눈썹도 온데간데없었죠. 모든 게 너무 순식간이었어요!

저는 그 일로 배운 것이 있어요. 위험한 것을 가지고 놀면 다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성신은 우리에게 외설물이나 마약과 같이 위험한 것들을 피하라고 경고하세요. 그런 경고를 무시하기로 마음먹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 해요.

그을렸던 앞머리는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랐어요. 그건 마치 회개와 같아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변화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든, 얼마나 나이가 들었든, 구주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려 하세요. 우리는 침례받던 날 느꼈던 그 평안을 다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도우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선물을 주셨어요! ■

줄리 코닐리어스-후앙
실화에 근거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한다.”(신앙개조 제11조)

이 렌은 타이완을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렌과 여동생 일라를 동물원에 데리고 가 주셨고, 배를 타고서 작은 섬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 섬에서 망고 나무와 난초로 가득한 아름다운 정원도 거닐었죠. 어떤 산에 올라갔을 때는 원숭이가 이렌이 들고 있던 음식을 훔쳐 가려고 했어요! 여동생 일라는 원숭이를 무서워했지만, 이렌은 그런 원숭이가 좋았어요.

할아버지는 이렌과 일라에게 그들의 가족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알려 주고 싶어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이렌과 일라가 친척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식당으로 가서 이렌과 일라는 처음 보는 음식들을 사 주기도 하셨죠. 이렌은 젓가락 사용법을 계속 연습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이렌과 일라의 가족을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굉장히 큰 건물이었는데, 커다란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이렌의 가족은 신발을 벗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처럼 말이야.”

“여기도 교회예요?” 이렌이 물었어요. 이렇게 생긴 교회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건물의 지붕은 화려한 색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말려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짙은 남색의 승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문을 드나들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여기는 불교의 성전이야. 절이라고 부르지. 하지만 우리 교회 성전과 같이 결혼을 하거나 인봉하는 곳은 아니야. 할아버지 종교의 교회 건물이라고 보면 될 거야. 할아버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기 오시는 거야.”

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지난 달에 뉴스에서 본 타이완 지진 소식 기억나니? 할아버지와 이 절의 사람들은 지진 직후에 자원해서 사람들을 도왔단다.”

“그 사람들은 뭘 했는데요?” 일라가 물었어요.

“사람들에게 물을 갖다 주고 지진 잔해를 치우는 일을 도왔을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집을 잃은 사람들이 지낼 장소를 찾도록 돕기도 했지.”

“우와.” 이렌이 할아버지를 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많은 일을 하셨네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절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렌은 그곳이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라고 느꼈어요. 이렌은 여기저기를 돌아보았고 나무로 된 큰 조각상도 보았어요. 일라와 이렌은 멈춰서서 그 조각상을 바라보았어요.

“이분이 부처님인가요?” 일라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중국어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는, 두 손을 모으시더니 부처님 상 앞에서 세 번을 절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부처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법을 보여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렌은 눈썹을 찡그렸어요. “저건 혹시... ?” 뭔가 예전에 들었던 게 생각나는 것 같았어요. “저건 우상 숭배 아니에요?”

“불교인들은 사실 부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란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었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되새기고자 부처님 상을 방문하는 거야.”

“사람들은 여기서 절을 하면서 존경심을 표하는 거야.”

“여기는 불교의 사원이라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불교는 할아버지의 종교야.”

마치 우리가 악수를 하듯이 말이야.” 어머니가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시는 거란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렌과 일라를 두 팔로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 아니?”

“뭘요?” 일라가 물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 특히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더욱 말이지.”

이렌은 할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마음속에 따뜻하고 좋은 느낌이 들었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렌은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의 자녀



예수님은 친절하세요

김 웹 리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던 어느 날, 몇몇 가족이 아기와 어린이들을 데리고 다가왔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어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할까 봐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이들이 그분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에
가려면 어른들도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이들을 팔로 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세요. 그분은 제가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기를 바라세요.

누가복음 18:15~17 참조

나는 친절할 수 있어요





마크 이 피터슨
(1900~1984)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물문경: 진정한 기적

물문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의 계시이며, 영감으로 번역되었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업적입니다.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신성한 부름에 대해 ... 간증하며, 물문경이 번역되고 발간된 기적에 대한 제 신앙을 ... 선포합니다.

1823년 9월 22일 뉴욕 주 팔마이라 근처에서, 하나님의 한 천사가 당시 17세의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물문경이 감추어져 있는 장소를 보여 주었습니다. ...

이제 이 기록의 실제 번역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조셉 스미스는 ...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이것을 번역했다고 말합니다. ... 당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비평가들은 어린 조셉 스미스가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의도적으로 발췌하여 원래 물문경 원고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게 할 만큼 박식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조셉의 어머니는 조셉이 어린 시절에 성경을 다 읽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토록 신중하게 성경의 구절을 골라서 그같이 적절하고 능숙하게 물문경에 맞춰 넣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린 시절 성경도 끝까지 읽지 못했던 조셉은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할 만한 지식이 없었고, 비록 글쓰기나 편집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해도 그렇게 어린 시절에는 그런 면모가 드러나지 않았습디다.

[그러나] 물문경은 문학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위대한 걸작이며 어느 시골 소년의 소망이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

가령, 그 책에 기록된 구주의 아름다운 설교를 읽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과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조셉 스미스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더 보충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분의 설교를 다시 쓰고 [성경] 구절을 끼워 넣을 만큼 대담하고 유능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조셉 스미스는] 물문의 업적이거나, 예수님의 설교나, 아비아다이의 놀라운 변론이나, 말라기나 이사야의 기록에 조금도 손대지 않았습디다. 그는 오로지 번역을 했을 뿐, 편집을 하거나 직접 글을 쓰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하지도 않았습디다.

물문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의 계시이며, 영감으로 번역되었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업적입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것이 진실합니다. ■

“참으로 기적이었습니다”에서 발췌. 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15~18쪽, 번역 수정.



조셉을 가르치는 모로나이,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

1823년 9월 21~22일 밤과 새벽에 걸쳐 천사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에게 금판에 대해 알려 주었다. 조셉은 구모라 산으로 갔지만 금판을 꺼낼 수 없었다. 그가 부를 얻기 위해 그 판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모로나이는 다시 나타나서 조셉에게 “주님의 영광”과 “어둠의 왕자”를 보여 주었다. 모로나이는 두 가지 상반되는 시현을 보여 준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는 네가 이제부터 두 가지 권능이 있음을 알고 다시는 사악한 권능의 영향을 받거나 이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Latter-day Saint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196-98 참조)

그 밖에도 이번 호에는

청년 성인

의심의 위험 이겨 내기

병에 걸려 보이지 않게 죽어 가는 나무처럼, 우리의 영적인 뿌리도 의심에 의해 약화될 수 있다. 우리는 힘든 시기에 의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44쪽

청소년



58쪽

매일 10분 만이라도

다섯 명의 청소년들이 매일 여러 가지 기기의 화면을 보는 시간 중에서 10분을 할애하여 몰몬경을 읽고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여러분도 이런 목표를 세워 보자!

어린이

연차 대회 단어 세기

여기 연차 대회 동안 선지자와 사도들이 말씀하는 이야기의 단어를 세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요!



66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KOREAN

14449 320

3